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이 끝까지 전하는 세계선교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계속하여 감당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오 보배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항상 활과 같도라 (로마서10:13-15)

#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 시킨다!

### TGC, 레이코포인트교회 조시 하워튼 목사가 제시하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5가지 사례’ 소개

우선 경로부터. 여기 나오는 그래프들은 모든 교회가 건강하거나 반성이나 회개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님. 전혀 그렇지 않다. 교회란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건물이나 건물이나 건물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저분하고, 그래서 교회도 그렇다. (내 말이 미덥지 못하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거나 아무 교회나 가서 거기서 10분만 있어 보라. ) 완벽한 그리스도인은—따라서 완벽한 교회는—없다. 슬픈 일이지만 완벽한 것은 너무나 거리가 멀 때가 많다.

그런데 흠이 많고 죄가 많은 데 더하여, 교회에는 또한 주 무기가 거짓말인 원수가 있다. 영어 'devil' (데블; 악마)은 그리스어 'diabolos' (디아블로스)에서 온 말이다. 디아블로스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헐뜯는 자”이다. 계시록은 디아블로스(악마)를 “우리의 형제

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계 12:10)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해하려고 중상모략을 일삼는 이 악마를 “이 세상의 신”(고후 4:4)이라고 묘사한다. 이런 사실을 두루 종합하면 우리가 대비해야 할 그림이 나온다: 사탄은 교회의 잘못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거짓 이야기들로 교회를 비방하여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마 16:18)를 무너뜨려려 한다.

달라스 레이코포인트 교회 담임목사 조시 하워튼은, 그 결과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며, 기독교를 기술하는 문화 내러티브들과 실제의 기독교 사이에 존재하는 크나큰 간격을 보여주는 사례를 다섯 가지 소개한다(No, Christianity Is Not as Bad as You Think: 5 Statistics That Reveal It's Good for the World).

문화 내러티브 #1: 크리스천들은 실제로는 생명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출산을 옹호할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옹호하기보다는 출산을 옹호한다는 비방을 자주 듣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옹호하는 데 열정을 쏟는 척하면서 이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한다. (비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아동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취약 여성들을 돌보는 거의 모든 임신 여성 지원 센터(pregnancy resource center)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입양 비율은 미국 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기독교 단체들은 낙태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제공한다는 입증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 내러티브 #2: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억압하고 혐오



하며 독성이 강한 순결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

“순결 문화”라는 말이 기독교 성윤리로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만능 표어가 되었다. 자신의 성(sexuality)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해방되고 “성을 긍정하는”(sex-positive) 사람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억압적인 순결 문화를 내면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혐오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장인 즉슨 이러하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통계는 동의하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교회 가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는 범주에 속한다. 결혼생활을 언약 관계로 중시하는 부부일수록 열정이 가득한 영동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러한 열정적이고 영동적인 관계는 성경의 “낱아빠진” 성 관습으로부터 해방될 때 만들어진다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한다.

문화 내러티브 #3: 기독교는 감정을 억압하며 정신건강에 해롭다.

정말 교회는 신자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까? 이 역시 정반대다. 통계 데이터가 교회 출석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우울증에 덜 걸린다
- 자살율이 낮다
- 흡인과 약물 남용 같은 정서적 진통제 사용 빈도가 낮다
-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
- 더 나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
-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한다
- 사회참여도가 높다
-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3면으로 계속)



##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은 목회자! CT, 힐송교회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 사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초대형교회 힐송의 설립자이자 담임목사인 브라이언 휴스턴이 최근 시드니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정 소송과 목회자로서 위법행위 폭로로 인해 사임했다. 이 법정 사건에서 브라이언 휴스턴은 아버지 프랭크 휴스턴 목사가 1970년대 뉴질랜드에서 한 소년을 성폭행한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가 그의 아버지를 목사직에서 해임하고 교단에 보고했으며 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뉴사우스웨일즈주 경찰 당국은 휴스턴 목사가 '1970년대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재판은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후주 멜버른에 위치한 리들리 칼리지(Ridley College)의 신약학 학장 및 교수인 마이클 버드 목사는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의 사임을 통해, 우리는 단지 재능 있는 목회자가 아닌 경건한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힐송교회 문제를 분명하게 짚어준다(Hillsong Leaders Need Character More than Charisma).

최근에 힐송 국제 이사회는 휴스턴 목사에 대한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10년 전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은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가 직원에게 보낸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직원들이 사임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휴스턴 목사는 수면제의 영향으로 무분별한 행동을 했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2019년 휴스턴 목사가 호텔에 있는 신원 미상의 여성의 방을 두드려서 객실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면서 발생했다. 이 번에 그는 다른 사례와 유사하게 알코올과 함께 복용한 항불안제로 인한 운이 나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지용수 목사  
4면

**특집기사**  
제1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가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물: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성경일독을 돕는 Bible Reading Guide]  
**2022 전문강사들을 신입생 모집요강**  
① 입학자격: 구약/신약 성경을 수료하신 모든 분  
② 제출서류: 입학원서, 성경방 수료증  
③ 스쿨일정: 2022년 9월-2023년 1월(약 5개월간 주 1회 수업)  
④ 강의방법: ZOOM  
⑤ 특징: 목회자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모교, 선교사, 사모, 신학생 등)  
⑥ 사차별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Two Track School Course  
LA5기 스쿨은 미주와 아시아를 고려하여 Two Track School Course로 동시에 진행하여 동부 시차에 개인 분별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서부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부에 거주하시는 분을 위하여 서도 8:57(4pm PST)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박제니 전도사(213-220-6729, Jenny515280@gmail.com)

**Jama 영상 중보기도 컨퍼런스**  
이 나라, 교회, 가정,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자가 더욱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을 2022년 JAMA 영상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2022년 8월 8일(월) - 13일(토) YouTube 2022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

<p><b>강사</b></p> <p><b>한기홍 목사</b> 은혜한인교회 • 중보기도는 교회 부흥과 선교의 엔진이다. • 목회자를 위한 기도</p> <p><b>김준근 교수</b> JAMA / GLDI • 지금은 비상기도가 필요한 때 • 다음세대 지도자를 준비</p> <p><b>호성기 목사</b> 빌라 안디옥 교회 •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p>	<p><b>강민수 목사</b> 시카고 레이크뷰연합교회 • 가정을 위한 기도</p> <p><b>허연행 목사</b> 뉴욕 프라미스교회 • 고국을 위한 기도</p> <p><b>위성교 목사</b> 북가주 뉴라이프교회 •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p>	<p><b>안지웅 목사</b> 메릴랜드 세소망교회 • 청년부흥을 위한 기도</p> <p><b>강순영 목사</b> JAMA • 중보기도의 위력과 응답</p> <p><b>김은애 권사</b> QT LIFE MISSION • 중보기도와 말씀묵상</p>	<p>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음과 뜻을 돌이켜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p> <p>이 비상한 위기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주신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드리며 이 모든 위기로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기도의 전사들이 됩시다.</p> <p>팬데믹으로 움츠렸던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뜨거워질 때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적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비상한 시기, 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차 가정 이 교회가 학교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비상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부흥을 체험하십시오.</p> <p>김준근, 한기홍, 강순영</p>
---	--	--	---

**참여방법**  
1. **교회적:** 특별 부흥회를 하시거나 새벽예배시 설교를 사용하시는 방법. 일정은 교회의 사정에 따라 정하십시오.  
2. **개인적:** JAMA 웹사이트(IPC.JAMAPrayer.com)나 유튜브에서 "2022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조회하여 말씀을 찾으십시오.

**문의처**  
강순영 목사 (310) 995-3936 | JAMA (903) 804-4016  
이메일 conference@jamaglobal.com  
우편주소 22392 FM 16 W., Lindale, TX 75771

**IPC.JAMAPRAYER.COM**







### 기독교는 사람을...

(1면에서 계속)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은 워싱턴 타임스 기사 한 토막. "규칙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웠던 2020년에 정신건강이 실제로 호전되었다."

- 사망 위험: 33% 감소
- 자살 위험: 84% 감소
- 우울증 위험: 29% 감소
- 이혼 위험: 50% 감소
- "절망사"(絶望死, Deaths of Despair) 위험(여성): 68% 감소
- "절망사" 위험(남성): 33% 감소
- 청소년 불법 약물 사용 위험: 33% 감소
- 청소년 우울증 위험: 12% 감소

문화 내러티브 #4: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오로지 정치적 힘에만 관심이 있다.

일부 진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을 혐오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들의 "진리 주장"(truth claims)은 단지 파워 플레이 곧 자기네 유권자 진영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렇다. 매일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비종교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다.

문화 내러티브 #5: 기독교는 여성을 억압한다; 기독교는 폭력적인 가부장제의 도구이다; 기독교는 여성에게 해로운 관계들을 양산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투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우리는 여성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기관이라는 범주에 교회에 속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ChurchToo(교회도 가해자다) 운동은 엄연한 현실이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다만 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문제에서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우리의 신학대로 살아가지 못한 실패이지 우리의 신학 안에 내재하고 있는 실패가 아니다.

더하여, 통계 데이터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교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덜 확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내러티브 #5와 반대로,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젠더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 미국 내에서 학대당한 경험이 가장 적고, 가장 행복한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에 속한다.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통계 자료는 얼마든지 더 제시할 수 있다. 규칙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일수록 주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마약을 하거나 결혼 전에 성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혼할 가능성이 35퍼센트 낮다. 심지어 교회 출

석의 수명을 7년 연장해 준다는 연구도 있다.

요점은 이것이다: 세상과 미디어에서 인식하는 교회와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어떨며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 나는 우리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개인적 고통을 무시하는 데 관심이 없다. (사실은 복음이 참되기에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망가진 모습 속에서도 엄연히 빛을 발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용맹이여지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라. 당신의 형제자매들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닌 이들이며,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일으키고 있는 진정한 변화를 애써 외면하려고 우리의 잘못을 핑계거리로 삼지 마시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다.



### 시론

## 프롤로그에서 에필로그까지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LA의 기차여행은 바닷가를 끼고 달리는 낭만이 있다. 하룻길 여행이라면 다운타운의 유니온역에서 남쪽으로는 오션사이드나 샌디에고까지, 북쪽으로는 산타 바바라나 샌루이스 오비스포까지 다녀오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기차여행에 가장 좋은 친구는 한 권의 너무 두껍지 않은 책이면 훌륭하다. 저자의 프롤로그(Prologue)부터 에필로그(epilogue)까지 다 읽으면 도착할 수 있는 기차여행에는 출발역과 도착역이 있다. 그 길이 여행이라면 출발은 실레이고, 도착은 행복하지만, 그 기차에 탄

모든 승객이 여행길은 아니어서인지 책을 든 승객이 많지 않다. 하긴, 책보다 흥미로운 스마트폰을 든 손에 책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정보 분량, 흥미 모든 면에서 스마트폰은 책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도, 이번 짧은 기차여행 길에 책을 한 권 백팩에 넣은 것은 지혜로운 결정이었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왔다. 스마트폰에 없는 프롤로그를 읽고, 도착할 때쯤엔 에필로그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책을 읽지 않는 스마트폰 인생과도 같다. 프롤로그도 에필로그도 없는 교회, 창세기의 알파도 요한계시록의 오메가도 없고 줄거리도 잃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다. 임진각에서 있는 고철 덩어리 기차처럼 잠시 와서 보고 가는 무생물이 되어가는 것같이 두렵다.

저자는 프롤로그를 통해 진행될 이야기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상징하거나 보여준다. 신앙 인생이 들고 올라탄 성경책은 음식의 에피타이저(appetizer)처럼 맛갈스러운 주방장의 손맛을 짐작하게 하는 프롤로그로 시작해 에필로그의 붓끝이 하늘을 가리키며 막을 내리고 있다. 예수 부활 이후,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지난 2천년간 지구촌 곳곳에서 붓끝이 가리킨 하늘이 열려 쏟아져 들어오는 체험을 하고 있다.

이민교회가 그 체험을 하고 싶다. MT가는 경춘선 열차에서 해방감에 외쳐대는 시끄러운 소리나 미끄러져달려가는 KTX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원의 피곤이 교회라면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차장밖에 펼쳐지는 풍경을 배경으로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는 기쁨이 교회에 회복되길 바란다.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의 이제 출판물 앞둔 책의 에필로그를 쓰듯 깊은 영성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 한국 최초 '임종감독'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송길원 목사는 '죽음이 품격을 입다'라는 책에서 '인생은 원더풀, 떠남은 뷰티풀'이라고 정의했다. 송목사는 인생의 죽음을 연구하고, 도우면서 '장례식보다는 생전식(生前式)', '임종 환자를 위한 나들이' 등 이른바 죽음 수업을 맡아주는 교회의 역할을 제안했다. 그야말로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권세 주님께 돌리세... 할렐루야'를 외치며 영생의 시작을 연결해주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인생의 에필로그를 쓰는 삶을 안내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교회는 VBS와 수양회의 절기이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열지 않는다. 아니 열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한 가지, 노년층은 많아졌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책 앞뒤에 있는 저자의 마음글처럼 인생에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필요하다. 생명체인 교회는 그 알파와 오메가의 메시지가 더욱 필요하다. 출발역을 떠난 기차는 아직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다. 영적 점령군이 또 공격해온다는 경종(警鐘)이 오늘도 울려오고 있다. 창세기의 프롤로그를 선언하는 교회,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완성된 작품의 앞뒤에 밝힌 저자의 마음처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1면에서 계속)  
 힐송은 전 세계에 교회를 개척하고 오순절주의를 디지털 시대로 가져옴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성공과 함께 사역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사역자와 사역을 보호하고 거대한 돈의 흐름을 유지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다. 그것이 경솔한 행동을 눈감아 주거나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휴스턴 목사의 변명은 매우 실망스럽다. 약물치료는 개인의 정신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명은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힐송 이사회가 올바르게 지적한 한 가지 분명한 문제는 '힐송의 통치 모델은 역사적으로 담임목사에게 상당한 통제권을 부여해 왔다. 한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건강한 리더십 문화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의 통치 모델, 어떤 종류의 리더십이 투명함과 책임감에 더 도움이 되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성경학자 앤디 주드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권력이 어디에 분산되어 있는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고 검토되는지, 그리고 리더에게 역할을 강행하는 경우 그다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언제나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리더십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목회자의 성경적 자각은 조희수, 다운로드 수, 책 판매 기록, 수익, 집회 횟수, 신도 수 또는 교회에 출석하는 유명 인사의 수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목회자에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루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기를' 요구한다. (디모데전서 3:2-3)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가르치신다. (마태복음 23:11-12)

신학교 시절, 나는 성경적 신앙을 기반으로 한 훌륭한 교회에 들어갔고, 전도사 자리를 놓고 고민하던 중 한 목회자를 만났다. 나를 안지 얼마



안 된 그는 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었지만 성격에 대해서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말했다.

"네가 재능이 있다는 건 알지만, 네가 경건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그 말은 그 이후로 내 마음에 계속 맴돌고 있다.

재능이 있는 것과 경건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마치 당신이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당신의 가슴 깊이 자리 잡은 욕망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무대 위의 모습과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 하는 행동 정도의 큰 차이

다. 휴스턴 목사의 사건을 통해 복음주의 세계가 단순히 대중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닮은 성품은 품은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아첨꾼이 아니라 제자를 키우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벌거벗은 것처럼 여기고, 개인의 명성에 연연하지 않을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성공을 우상으로 여길 때 예배가 거짓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지도자를 원한다.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 **순삭성경 Hisfinger Media** 🔍

“신리”가 중요한 [4:30]

싸움에서 이기려면 [4:18]

어디나 지금이나 중요한 남자! [4:27]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즈핑거는 기독교 컨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 칼럼, 짬뽕더위

로마에 거주한지 만 40년이 되는 데 요즘처럼 심각한 더위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우리만 더운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덥다고 하니, 덥다고 엄살을 부리기도 좀 그렇다.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친구

도 너무 덥다고 전화가 왔다. 로마는 6월부터 더위가 찾아왔다. 보통은 7월이 되어서야 햇볕이 따가워지는 데 말이다. 6월인데도 밖에 나가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가 되니 이

무슨 변고인가 싶다. 성경을 읽다가 계16:8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고 했는데, 혹은 이 말씀의 성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더위도 이처럼 힘들어하는데 더욱 심해진다면 살기 어렵겠다 싶어진다. 뉴스에 의하면 노인들이 쓰러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도 하고, 중국의 상하이는 43도로 136년만의 더위라고 한다.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습도가 100일 때, 35도, 습도가 50% 일 때 46도가 인간의 안전 상한선이라고 한다. 그 이상이면 견디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더위가 어떻게 발

전할지 모른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지게 될는지도 모르고--- 그 뜨거움이 대지를 달아오르게 하는데,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이태리는 가뭄이 심각하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번만 감기도록 행정 명령을 내릴 정도로 말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땀이 비오듯 하니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갈 데도 딱히 없다. 로마는 어디 시원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요즘에 전쟁으로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장사는 시원치

않으니 에어컨을 신나게 틀어놓는 곳도 없다. 더더구나 이태리는 전기를 대부분 불란서와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상황이니 전기세가 비싸기도 하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직업군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다. 집 앞 큰길가 약국 앞에서 구걸하는 50대로 보이는 분이 있다. 아마도 외국에서 온 분인 것 같은데, 큰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매일같이 구걸을 한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여인들이다. 이들은 동병상련을 느끼는지 오가면서 누워있는 개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개 먹이를 사다 건네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앞에 놓인 통에 동전을 넣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들이 사라지고 뜨거

운 열기로 가득하게 되니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 그도 자리를 들고 일어서고 만다. 3-5월 사이에는 서늘한 날씨가 오전, 오후 두 번이나 길가에 앉아 구걸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들이 있는 아침 나절만 잠깐 하고 끝낸다. 그러나 공황을 바라는 통은 시원치 않다. 더위는 이처럼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한다. 이제 더위는 때가 왔다는 듯 더욱 기승을 부릴 텐데 더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다. 우리는 단지 덥다고 불평하지만, 강탈당하게 될 조국을 지키려고 분연히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더위는 더위가 아닐 것이다.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지용수 목사  
(한국 양곡교회)



어느 원주민들은 문명인들의 생활양식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의문을 제기한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노력해서 발전했을 때 축하하고 잔치를 해야지, 가만히 있어도 오는 생일에 왜 잔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깊이 생각해 볼만한 그들만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가고, 빛과 소금된 삶이 자라가고, 기쁨이 커나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으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온을 치게 합니다. 웃시야가 다스리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농사도, 축산도 잘 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큰 바윗돌을 쏘고 던질 수 있는 대포까지 만들자 그 소문이 원방에 퍼져 감히 그 나라를 엿보는

리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분을 급히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잠언 12:16)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야고보서 1:4) 이 말

았는 자는 명장입니다. 옛날 성은 여리고 성처럼 성벽이 두터워 정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Mind'가 아니라 'Temper(기질)'을 뜻합니다. '나는 기질이 이렇다, 나는 취향이 이렇다, 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질입니다. 본문의 '마음'은 바로 이런 성질을 뜻합니다. 이런 성질, 기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핑계대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한지 모를

것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을 꿀 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빼에 양약이 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그 말이 선한 꿀 같아서 듣는 사람들이 달게 듣고 살맛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기쁘면 기쁜 말을 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

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오진이 겠지. 내가 이렇게 건강인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니"라며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3년, 4년도 더 산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관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야 결국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기도하고 화가 나며 분할 때 "주님, 주님!"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때, 선악과를 따 먹고 싶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교회 한 집사님의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집사님이 "누구는 놀 줄 몰라서 안노는 줄 알아?" 하며 차를 몰고 마산으로 향했답니다. 아무 술집이나 들어가 아무나 함께 놀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암 다리를 지나갈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디 가니?", "다른 사람이랑 저도 놀러고 갑니다.", "네 남편이 그러냐고 너까지 그러니? 그러면 네 집은 어떻게 되고, 네 이들은 어떻게 되겠니? 너는 구역장이고 집사인대 어찌 그러니?",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랬습니다..."

# 용사보다 더 나은 자 잠언 16: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우리 중 어떤 것에 화를 내고 분을 내어 일을 망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용사는 보통 용사가 아니라 역전의 용사, 굉장한 장군을 뜻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127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감히 그 나라를 엿볼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니 즉위 3년에 그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후 와스디 후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 왕후를 칭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내가 술집 색사냐?"고 화를 내며 불복종합니다. 이 일로 왕후의 위를 폐하고 쫓아냅니다. 왕후 와스디는 화를 내어 쫓겨나는 여자가 되고 아하수에로 왕 역시 분노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화를 내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웃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시야 왕이 어릴 때는 그의 아버지 아마사왕처럼 정직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성해지니 왕이 교만해 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자기가 분향하려 합니다. 그때 용기 있는 제사장들이 말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그를 나병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쫓겨나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았습니다. 웃시야왕은 화를 내다가 건강도 왕의 자

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화를 낼 자리, 분노를 터뜨릴 자리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을 빼

니다. 마음은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아야 합니다. 항상 열려 있거나 항상 닫혀있는 창은 창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열어야 하고 유혹의 바람이 올 때는 닫아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고 겸손하게 지켜 놓으면 우리에게서 귀한

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장수하고 우리 가족도, 우리교회도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의학 책에서 본 내용을 인용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

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오진이 겠지. 내가 이렇게 건강인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니"라며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3년, 4년도 더 산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관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야 결국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기도하고 화가 나며 분할 때 "주님, 주님!"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때, 선악과를 따 먹고 싶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교회 한 집사님의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집사님이 "누구는 놀 줄 몰라서 안노는 줄 알아?" 하며 차를 몰고 마산으로 향했답니다. 아무 술집이나 들어가 아무나 함께 놀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암 다리를 지나갈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디 가니?", "다른 사람이랑 저도 놀러고 갑니다.", "네 남편이 그러냐고 너까지 그러니? 그러면 네 집은 어떻게 되고, 네 이들은 어떻게 되겠니? 너는 구역장이고 집사인대 어찌 그러니?",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랬습니다..."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정체성 정치 - Identity Politics” & “성정체성 혁명 - Sexual Revolution” 으로 파괴된 지난 10년간의 미국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 유행과 인본주의가 우상화된 미국, 그 열매들은 누구의 몫 일가요..... 크리스천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1호에 이어서,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그 행정부가 미국 역사적으로 획을 그은 성적 정체성 혁명의 현장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지난 1호에도 나눴듯이 6월을 동성애 자랑의 달로만 축하하는 게 아니라 “Progressive Pride Month - 진보 자랑의 달”로 확장 시키는 정치운동이 벌어지면서 지난 6월 2일 달라스에서는 동성애에서 진보된 ‘DRAG THE KIDS TO PRIDE’라는 끔찍한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일은 미

외침 강조를 위해 이렇게 씁니다. 무대에 오른 아이들은 여장을 한 남자들(주로 strip dancer들)의 무릎 위에 앉혀진 채로 쇼가 진행됩니다. 이런 이벤트를 여는 LGBTQ 운동가들은 대놓고 “나이에 상관없이(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라도) 이런 행사가 모든 연령에게 적합하다”라고 말

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버젓이, 그리고 대표적 보수 성향인 텍사스 주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텍사스뿐 아니라 미 전역적으로 퍼져나가는 중이라는 사실...! 어떻게? 그 이유는 LGBTQ 행동가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

동성에 및 진보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 위에 10년 전에는 오바마,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떤 일이 어디까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

###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역의 학부모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러나, 달라스에서 있던 일은 지금도 캘리포니아, 뉴욕, 등등 진보주의 반기독교 주(States)로 소문난 주들에서는 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행사 제목과 달리 4~5살에서 10살 미만의 어린 남자들과 여자아이들에게 분장을 시키고 댄스홀을 걷게 만들고 어른들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어린아이들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쇼의 진행자는 어린 아이들을 무대 위로 나오게 하기 위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왕님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싶나요오오? 내가 선택한 여왕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다섯명에게 있습니다!!! Queens와 어울리고 모든 연령대의 손들에게 적합한 이 독특한 프라이드 경험을 즐기십시오오오오!”(excitement을 담은

합니다.

믿기지 않지만, 이런 행사들은 도시에서부터 시골까지 전 지역으로 뻗어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적 성향이라고 생각했던 텍사스의 도시들까지 이들이 파괴해가 아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해보도록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것입니다.

저들은 죄 없는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단속대상이었습니

다.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에는 곳곳이 음란한 성적인 장식으로 가득하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있지만 상관하지 않고 야유를 외치고 고통치며 즐기는 어른들이 가득합니다.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이 나라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연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

습니.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동성애 Pride Month (금지 달)을 맞아 연설을 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집에서 이 ‘금지 달’ 행사를 보는 모든 트랜스젠더 미국인,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정말 용감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인정하는 날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 대통령이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용감하며,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주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특히 젊은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신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당신들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습니.

감사하게도,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법으로 막고자 공화당 쪽에서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텍사스 시민들이 일제히 일어나고 있다는 감사한 소식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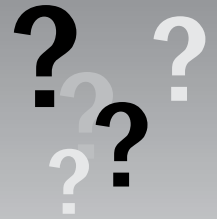
또한 미조리주와 중부의 여러주들 역시 이러한 말도 안되는 Child Abuse 를 막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 도시, 주에 대한 현실 파악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요... 미국과 여러분의 도시를 위해 뜨거운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켜나갈 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다음호에 계속 - 더 자세한 내용들은: Tvnext.org 에서 보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셀비처에서 김장모

**A:** 공식 예배 시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온 교우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순서를 맡았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한 주간을 잘 준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가 주일설교를 위해 한 주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표 기도자들도 기도할 내용을 미리 써보고 준비하여야 하실 것입니다. 대표 기도 시에는 정장모로 최소 20분 전에 교회에 입장하여 준비 기도를 하십시오. 사회자가 이미 누가 기도한다고 말했기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라고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표기도는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 긍정적, 감사, 소망이 넘치는 기도”

- 1) 사회자가 누가 기도하겠다고 하면 바로 뒤에서 대기하셨다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받아 바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2) 대표기도 시간은 대략 3분 이내입니다. 제한된 시간(한 시간 정도)에 예배가 진행되기에 꼭 시간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놓고 한번 연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3) 종이에 써서 기도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써서 하시되 읽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익숙하게 몇 번 연습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써서 다 외워 하시면 더 좋을 줄 압니다.
- 4) 대표 기도는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1) LA와 사시는 곳의 한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2) 설교자의 성령충만과 충만한 설교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3) 성가대 찬양과 오늘 중요 행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5) 대표 기도자는 항상 긍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듣기에 부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회중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소망이 넘치는 기도를 하십시오.
- 6) 기도를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 7) 기도 시에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말을 삼가하십시오. 보통 아버지께도 자식이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 2022년 가을학기 수업일정

**8월 22일-10월 16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inistry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상황화)

**10월 17일-12월 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사역을 위한 문화인류학)

#### 2023년 봄학기 수업일정

**1월 9일-3월 5일**  
DI 8280 Doctoral Research Methods  
(사회조사 방법론/논문작성법)

**3월 13일-5월 7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 치유)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열다! 열음! 여름!

아침에 인터넷 신문을 읽는데 기후우울증(Climate Depression)이라는 단어를 보았다. 이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는 지금 우리가 겪는 기후변화에 대해 단순히 날씨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는 증상이 아니라고 한다. 기후우울증이란 기후위기가 자신과 가족·친구·친지를 비롯해 국가와 인류에게도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 아래 불안과 우울감 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우울증은 젊은 여성들의 출산을 기피하게 하기도 하여 더욱 위험하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3일 열린 유엔환경회의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브리핑에서 "기후변화는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

다"라고 선언했으며, "빠르게 변하는 기후를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 절망, 무력감 같은 감정을 강렬하게 경험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구 온난화로 매년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올해 여름도 작년보다 더 덥다는 뉴스도 이제 새롭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날씨에 몸과 마음까지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서울과 미국 워싱턴 DC는 지리학적으 위도 38도에 근접하고 있어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기후적으로 한국과 같은 사계절과 비슷한 온도에 익숙해져 버지니아 생활에 더욱 편안함을 느끼며 산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 가족과 통화를 마치면서 날씨가 같다고 하시며 더운데 아이들과 모두 건강 조심하라고 얘기하실 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함과 그리움으로 화면을 닫는다.

영어의 Summer는 '반년, 년(年)'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Samma와 같은 어근의 말이다. 프랑스어 'été', 라틴어 aestas는 본래 '열, 뜨겁다'를 의미하던 말이었다. 이렇듯 근원적으로 '여름'을 의미하는 말은 '뜨겁다, 덥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옛말 '여름'은 여름(夏)만이 아니고, 농사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여름은 '여름'으로 바뀌면서 '열매'를 이르는 '여름'과도 동음어가 되었다. 따라서 '여름'은 '하(夏)·농(農)'의 의미 외에 '열매(實)'의 의미까지 지니게 된 것이다. <여름이 되면 식물에 열매가 열립니다.>의 문장에 '열다'의 줄임말로써 '열다'의 동사형이 명사형으로 여름이 된 것이다. <열다- 열음- 여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여

름 - (우리말 우리 문화, 2014. 12. 30)

미국 회중 교회의 여름 사역은 슬로(Slow)하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더운 날씨와 호우, 태풍에 예배를 참석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7,8월 여름 동안 예배시간을 이른 아침으로 조정하기도 하고 예배 후 친교시간을 잠깐 쉬기도 한다. 특별히 남편이 속한 UMC교단은 임지를 옮기는 목사님들은 7월 첫 주부터 새 교회의 사역을 시작한다. 9월 가을학기 전에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하는 배려인 것이다. 미국 교회의 여름은 충분하고 자유로운 침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음 학기와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대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여름

동안 바쁜 일상과 자녀들 학교 생활로 하지 못했던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 사역을 활발히 갖는 시간으로 보인다. 특별 새벽기도회, 부흥회와 특교인 수련회 등 다양한 여름 사역을 통해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여름을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사역을 통해 이어가며 교회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으로 보인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 사람을 불쾌하고 지치게 하는 그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계절은 열매가 열리고 자라게 하는 열정을 품고 있다. 이 여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소명들을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켜 감사와 축복의 열매를 열리게 하는 계절이 되도록 하자!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스리랑카 대통령 물어낸 '신앙의 힘'

국가 원로인 카루 자라수리야 전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이달 초 개신교와 가톨릭, 힌두교, 불교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앞날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리랑카는 극심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였고, 연일 대규모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스리랑카 성공회 지도자들은 "근면하고 정직한 대다수 우리 국민은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실패한 정부를 둔 국가에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통합과 자치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군용기를 타고 해외로 몰래 도피한 데 이어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이 대통령 일가 퇴진을 촉구한 지 약 4개월 만이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그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다.

18일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에 따르면 라자팍사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정부 고위직에서 물러나게 된 데는 교회와 기독교인 역할이 컸다. 주요 교파 지도자들을 비롯해 크리스천 출신의 정치인과 언론인 등이 부패 관리들과 무분별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CT는 특히 "자체적으로 침묵시위를 조직하고 기도 모임을 개최하며, 종교 포럼에 참여하는 등 투쟁과 연대에 동참해왔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나눔과 섬김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스리랑카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경제 불황에 수백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다. 일례로 현지의 한 감리교회는 몇 주간에 걸쳐 점심 나눔을 이어오다가 하면, 또 다른 교회는 건식 식료품 키트를 모아 나눠주는 '열린 찬장'을 운영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법조인과 기업 CEO 등 유력 기독교인 사들이 의회 등에 입성해 법·제도를 통한 사회정의 달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고 CT는 보도했다.

기독교 박해감시기구인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2022 기독교 박해' 통계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52위다. 주요감시국가 상위 5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다. 기독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압력과 박해가 존재하는 곳이다.

전세계 75개국 금리인상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연달아 기준금리를 높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서고 있다.



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까지 이 대열에 동참해 75개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거나 인상을 예정이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발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 흐름에 따라 경색하듯 금리 인하에 나섰던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금리인상 도미노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중앙은행(ECB)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의 중앙은행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금리 인상에 나섰거나 인상하기로 한 각국 중앙은행이 75곳에 이른다"고 전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도미노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심각한 우려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작된 원자재 및 공급망 부족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 및 에너지 가격 폭등 현상까지 겹치자 소비재 상품 뿐 아니라 중간재 부품, 인프라 건설 비용까지 줄줄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기세를 꺾지 못하면 각국 경제가 절벽으로 물리는 극한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속도가 1970년대 에너지 파동 당시처럼 광범위하고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이어 원자재 강국 캐나다와 산유국 멕시코도 금리를 인상했으며,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의 금리인상 직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렸다.

경제 충격을 염려해 금리 인상을 주저하던 ECB마저도 유로화 폭락사태까지 겹치자 금리인상을 위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 중앙은행장들을 소집한 상태다.

다만 90년대 '잃어버린 20년'을 해결하겠다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했던 일본은 여전히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아베노믹스로 엄청난 국가부채를 통해 경기를 부양했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일본 정부의 채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순 있지만 엄청난 부작용도 동반한다. 각 기업들의 생산이 둔화되고 연쇄적으로 경기 불황이 본격화되며, 주식과 채권 가격이 하락해 금융시장 유동성도 가속화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선 데는 이 같은 부작용보다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불황의 늪이 더 무섭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자재값 폭등으로 산업 생산은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고 소비재 가격 급등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서다.

NYT는 "지금까지 세계 경제 흐름에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자원부국은 물론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개발도상국들까지 인플레이션에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동남아에서 중위권 수준인 필리핀마저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막지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유럽 등 폭염에 사망자 급증

전세계가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남서부 유럽의 경우 폭염으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로 산불까지 나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

로이터, AFP 통신 등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에서 산불이 최근 몇 주 사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산불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 몇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스페인에 폭염과 산불이 동시에 이어졌다. 며칠째 최고 기온 45.7도에 달하는 이례적인 폭염이 들이닥쳤다. 산불 화재도 잇따라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압을 빼고 있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 마하스 인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3000명 이상이 대피했다. 스페인 공중보건 연구기관은 일주일 동안 이어진 폭염으로 36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지롱드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산불로 1만2200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1000명 이상의 소방대원이 산불 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7~13일 보전 당국이 폭염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 사망 건수보다 많은 238명이 사망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필수적인 여행이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고온으로 인해 철도가 휘거나 끊기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영국 기상청은 일요일인 17일부터 19일까지를 적색 폭염경보 기간으로 발표했다. 또 영국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 38.7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하고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 주 초에 들어서면 한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상청은 운전자들에게 차량 운행을 삼가라고 권했다. 또 런던과 맨체스터 등 전국 여러 곳에 적색 폭염경보를 내렸다.

니코스 크리스티디 영국 기상청 기상학자는 "기후변화는 이미 영국 내에서 극한적인 폭염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40도가 넘는 폭염이 여러 날 계속되는 것은 인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기후에 비교해서 10배나 더 높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경찰 대응 "충격적 실패"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격 참사 때 경찰 대응이 충격적 실패였다. 주 의회 조사결과가 나왔다. 376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왕좌왕했고, 뒤늦은 대응 탓에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었다.



텍사스주 하원 조사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77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위는 "경찰의 조직적인 실패와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의사 결정을 확인했다"며 "총격범 제압을 위한 훈련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고, 자신의 안전보다 무고한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4일 롬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모두 21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당시 경찰은 77분가량 총격범 진압 작전을 펼치지 않아 범행을 방지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앞서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총격 대응 실패 논란과 관련, 당시 현장 지휘관인 피트 아리돈도 유벨디 교육구 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주 의회는 아리돈도 서장뿐만 아니라 연방 기관과 주 정부 산하 경찰에게도 부실 대응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사건 대응 지휘소를 누구도 주도적으로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리더십의 공백으로 부상당한 희생자가 구조를 위해 한 시간 넘

게 기다렸고, 범인이 그동안 총을 계속 쏘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범인이 건물 내부에서 발사한 142발 중 약 100발은 경찰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발사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언급했다.

조사위 보고서는 "일부 희생자들은 구조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생존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경찰이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최소 6차례 911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보고서는 경찰이 진입 결정을 훨씬 더 일찍 내릴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며 "시스템적인 실패"라고 지적했다.

미국측함, 나폴만에 남중국해 또 진입

미국 해군의 6900t급 구축함 벤플드함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미 7함대는 16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인근 해상에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확보를 명분으로 한 미군의 군사 활동이다.

7함대는 성명에서 "이번 작전은 중국과 베트남, 대만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무해통항'(innocent passage) 제한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이 인정하는 항행 권리와 자유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무해통항은 외국 선박이 다른 나라의 안전, 평화, 이익 등을 해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영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7함대는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자유 무역, 남중국해 연안 국가의 경제적 기회의 자유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번 작전은 미국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작전은 지난 12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양사군도)에 이어 나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중국은 당시 미국 작전에 대해 '안보 리스크 제조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미국은 남중국해로 구축함을 또 파견해 대응한 것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전날 국무부가 대만과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체결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자국 탱크와 전투차량의 수리·예비용 부품 구매와 조립, 병참 기술지원 등을 원했고, 미국은 관련 부품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DSCA는 "대만의 운송 수단, 소형 무기, 전투 무기 체계, 병참 지원 물품의 유지보수 도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대만의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 "최근 여러 차례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듭 언급되며 긴장 고조를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이번 군사 지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5번째"라며 "미국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미국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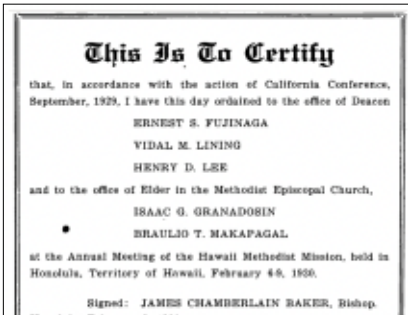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50. 이동빈 (1898-1947)

이동빈(李東彬)은 1898년 7월 16일에 평양 북쪽 안주에서 태어나 1905년에 노동 이민자 자녀로 하와이로 이동하여 이헨리로 불렸다. 호항 사우스힐로에 있던 힐로 기숙사 남자학교에서 교사로 봉직하던 1916년에 이수잔과 결혼했다. 이화여전을 졸업한 신부는 박용만이 1918년에 호항에서 펴낸 태평양시사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이동빈은 최두환, 이기복, 박범구, 이피터, 노원만과 함께 1918년에 이승만이 교장으로 있던 태평양 중앙학원을 졸업했고, 그해 10월에 세계 제1차 대전 징집서류를 제출했다. 1920년에는 힐로 기숙사 남자학교에서 교사와 회계사를 겸직했는데 이후 오아후섬 북쪽의 와일누아 농업회사 사무원으로 취직하였고, 와일누아 한인감리교회에 등록했다. 1923년 6월에 청년 40여 명이 하와이 한인사회의 통일을 위하여 신한소년회를 조직하고 연 2회 와일누아 농장에서 모이기로 하였는데 이동빈이 회장이었고, 부회장에 김찬재, 총무에 강영각, 서기에 노원만, 회계에 김윤옥, 감사원에 서봉성이었다.



세례교인 26명이 타지로 떠났다. 35명이 주일학교에 등록된 가운데 평균 30명이 매주 출석했다.

지난 2년간 지방 전도사로서 필요한

연회는 사우스 킹 스트리트 감리교회에서 이동빈에게 집사목사로 안수하고, 와일누아 한인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같은 섬의 가후구 한인감리교회로도 파송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동빈은 와일누아 지역에 교회학교를 운영했다. 그해 6월에 강영각의 주선으로 1년 전에 조직한 한인농촌학생회 회원 90여 명이 와야와 지방에 모여 연의회, 졸업식 만찬회 그리고 유희를 가졌는데 동포들이 50달러를 모아 후원하였다. 이날 이동빈이 황해수, 강영복, 최성덕, 박동환, 안창호와 함께 권면순서를 맡았다. 이날 동회 음악대도 참석하여 청아한 음악으로 큰 흥미를 주었다.

1931년 2월까지 와일누아 교회에서 이동빈은 성인 5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달에 학습교인은 20명이었고, 세례교인은 8명이었으며, 다른 곳으로 이주한 세례교인은 무려 28명이나 되었다. 주일학교를 처음 조직하여 교사와 직원으로 5명을 임명하였고, 55명이 등록하였으나 평균 45명이 출석하였으며, 주일학교를 위하여 1년 동안 25달러를 지출했다. 그리고 사백 임대비가 300달러였는데 작년에 이어 하와이 선교부가 보조한 듯하다. 그런데 가후구 지역 한인노동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가후구 교회는 폐쇄된 듯하다.

그해 2월에 회집한 제26회 하와이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가대 경기가 있었다. 이날 이동빈이 인도하는 와일누아 성가대가 2등 장원을 하였다. 이용직 목사가 주장하는 기독교 찬미대가 1등 상자원을 탔고, 강영각 인도의 와야와와 한인감리교회와 박관두 인도의 호항 한인감리교회 찬미대도 참가했다.

1933년 6월 주일 아침 11시에 주일학교 졸업생 축하 예배가 있었다. 중학교와 예비 중학교 졸업생 6명에게 화환을 걸어 축하했고, 순회선교사인 흥한식이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나누었다. 성가대가 청아한 노래로 찬양한 후 교사 정두옥과 교장 이동빈의 축사가 있었고, 개근한 남녀 소년과 유년에게 시상했다. 그해 8월에 와야와와 한인기독교인 중 50여 명이 와일누아 공원에서 미주로 유학 가는 흥제임을 전송하는 소창 순서를 가졌는데 본교회 박동환 목사, 최창덕, 최선주와 함께 이동빈도 전별사를 담당했다. 그해 10월에는 와야와파 농장에서 농업 하는 김래운의 삼자 안드레와 와일누아에 거주하는 김처후의 영양 씨와의 결혼식에서 이동빈이 주례하여 성대한 잔치까지 있었다. 그해 이동빈의 사회로 성탄축하식이 있었는데 흠스 목사의 축사, 흥한식 목사의 환영사 및 준비위원회에 대한 감사담, 찬양대의 찬양, 소년반의 성극, 유년반 암송과 노래가 있었다.

었다. 이날 정운서, 임두와, 문준형과 함께 이동빈이 권면했고, 청년들이 청아한 음악과 노래 순서를 맡았으며, 졸업생에게 은잔 하나씩을 선물로 주었다. 그해 8월에 이동빈은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청년회의 진흥을 위해 연구와 주선을 하였고, 다음달에는 찬양대가 지 맡았다. 그해 11월에 성탄 경축식 순서위원으로 선정된 그는 수전위원 강윤심, 정봉아, 김관실, 단장위원 지안영, 예물위원 김안식, 재무 김인식과 함께 성탄 경축식 순서를 계획하여 자신이 사회를 맡아 일동의 찬송, 최원숙 교사의 기도, 이옥인의 독창, 청년들의 성탄음악, 유년들의 암송, 흥한식 목사의 축사와 선물 나누기가 있었다. 이날 성탄경축예배를 위하여 11달러 50센트를 지출했다.

1935년에 들어서서 이동빈이 지도한 본 교회 청년회는 회장에 김치영, 부회장에 박마리아, 서기와 재무에 이옥희, 사교 위원에 이옥인, 순서 위원에 박석주, 인도 위원에 안태영을 선임했다. 그해 3월에 호항 선교기념관에서 동지회 주최로 300여 명의 청년이 모여 이동빈이 사회한 가운데 특별강연을 개최하였는데 강사인 이승만 박사는 유럽 여행담과 청년의 장래에 관하여 영어로 연설하여 큰 희망을 품게 했다. 그해 6월에 약 200여 명의 동포가 모인 가운데 동지회가 한인 중학교 졸업생 80여 명을 초대하여 축하회를 열었는데 동회 청년부장 이동빈이 흥미를 돋우었다. 3일 후 주일학교 졸업생 축하 회락회가 있었고, 그달 16일에 주일아침예배는 졸업생 축하 예배로 모여 닐 니후아 중학 졸업생 정남조, 와일누아 예비중학 졸업생 안에스더, 김줄리아, 김리베카, 김스틴윈, 정남선, 영흥태, 염원태, 이토마스, 박준순 그리고 오광복에게 화환을 걸어주고 작은 책자를 선물했다. 그해 8월경부터 주일 아침예배에 소년과 유년이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고, 예전대로 청년들에게 주일 아침 예배 출석을 강조하면

## 1930년 2월 사우스 킹 스트리트 감리교회에서 집사 목사로 안수 와일누아 한인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같은 섬의 가후구 한인감리교회로도 파송 교회뿐만 아니라 와일누아 지역에 교회학교 운영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여 1928년 2월에 개최한 23회 하와이 연회는 이동빈을 집사목사로 과정 1년 차를 인정하고, 와일누아 교회로 파송했다. 신한민보는 그해 그가 아름다운 집을 장만하고 꽃다운 생활을 하여 대학은 가보지 않았으나 저희의 사업 성격이 대학생보다 배승했다고 칭송하였다.

1929년에 모인 제24회 하와이 연회는 이동빈을 와일누아 교회와 한인교회회 와일누아 지사장으로 파송했다. 윌리엄 H 프라이 감독이 1930년 2월까지 이동빈이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다고 보고했으나 세레나 유아세레나 학습을 준 자는 없었고, 엠워드 연맹이 활동하지 못했다. 그달에 학습교인은 20명이었고, 세례교인은 13명이었으며, 사백 임대비가 300달러였는데 하와이 선교부가 제공했다.

1930년 2월에 모인 제25회 하와이

연회는 이동빈을 오아후섬 와일누아의 주일학교와 청년회 등 기독교 활동의 디렉트로 파송했고, 1937년까지 계속 파송하였다. 그해 9월 초에 김유태 박사의 집에서 여러 명이 모여 청년운동을 위한 임시 임원을 선택하였는데 회장에 이용직이었고 그는 이싸라임 등과 함께 이사원이 되어 다음 달에 2, 30명의 청년 인도자를 초청하여 한인청년동맹단을 조직한 후 조국 정신 고취, 친목으로 청년 단합 경영, 사회적 수양을 실천하여 재미 한족의 장래 준비에 목적을 두고, 15세부터 30세까지는 전 회원으로, 31세이상 40세까지는 찬성회원으로, 그 이상은 찬성원으로 하고, 찬성원중에 이사원을 두어 모든 일을 주선하게 했다.

산일절 제13주년 기념으로 1932년 2월 26일에 호항 제일감리교회에서 소년 동맹단 주최로 한인과 백인 등 남녀

1934년 4월에 이동빈이 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최원숙 선생의 기도와 찬송대의 찬양후에 흥한식 목사가 고전 15:35를 본문으로 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기도한 후 찬송대 찬양에 이어 제1장 찬송으로 폐회했다. 그해 6월 15일 밤에 이동빈이 사회한 가운데 농장 클럽 하우스에서 졸업생들을 위한 축하 회락회가 있었고, 그달 17일 주일 아침예배는 졸업생 축하 예배로 드렸을 때 이동빈은 졸업생을 위하여 권면하였다. 이날 중학 졸업생은 정남용, 영두시, 박우터, 박찬주였고, 예비중학 졸업생은 정봉금, 정수경, 김동이였다. 그달 23일에는 와야와와 구락관에서 조미구락부 주최로 100여 명 동포가 모여 회원 자제 중 중학교 졸업생인 임복순, 장줄리아, 민도마, 문덕관을 위하여 성대하게 졸업축하식이 있



서 부모가 협력하라고 부탁했다.

1938년에는 하와이 연회 이후 이동빈은 선교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것 같다. 여러 해 와일누아 농장 회계사로 근무하며 자비방 선교사로 사역했던 그가 1942년에 호항으로 이동했다. 호항 스타 불러틴은 그가 1947년 3월 10일에 49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다이나몬드스 기념공원묘지에 안장됐다고 보도한다.

amien,soh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라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b>다민족교회</b>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다민족찬양대: 매주(목)오후 4:00-7:00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b>벨렐교회</b>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b>새생명한인교회</b>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새벽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b>일칸사 제자들과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b>앵커리지지역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b>킬링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토요일예배: 오전 5:30(화-금)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 말씀과 땅 (13) - 할례의 값

###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할례에도 값이 있을까?

삼 천 세겔 - 미화 930달러. 2022년 현재, 이스라엘에서 할례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이다. 이스라엘에서 비유대인 남자가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할 때, 정통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이 비용을 개종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정통과 절차를 따라 개종한다면 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통과 공동체에 속해 매일 613가지 계명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것이다. 그나마 2021년 3월, 이스라엘의 고등 사법재판소가 정통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개종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어 보수파나 개혁파 절차를 통해서도 유대교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할례 비용의 지원 혜택은 오직 613 계명을 준수하며 살아갈 개종자에게만 현재 주어지고 있다.

할례에는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다. 사실 할례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이 논란이

있도록 개종자의 편의를 봐 주는 경우도 있다. 처음엔 이를 '특혜'라 생각할 수 있다. 613개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면제받았으니 삼천 세겔을 지불해야 할 의무도 없으며 또 모헬(할례 집례자)이 쥘 칼 날에 피를 보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혜'를 본 이가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한 유대인들이 그를 동족으로 보지 않

내 언약이 아니라'(창17:10).

아브람이 구십 구 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명령이다(창17:1). 이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기에 앞서 먼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

함으로 바꿔 주셨다(창17:5). 뒤에 사래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며(15절)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삭과 세우리라'(창17:21). 이렇게 할례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살에"(창17:13) 새겨져 있음을 보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낳은 첫 씨의 후손이라는 근본적 차별성, 즉 선민 신분의 표징이었다.

물론 할례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전통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대 애굽 인들은 족장시대 훨씬 이전부터 할례를 행했고, 가나안인들 역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당도하기 이전부터 할례를 행했던 흔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는 생후 8일째인 갓난아이에게 그 의식을 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학자들은 고대 애굽인들의 할례를 사춘기를 지나는 사내아이의 통과의례 내지는 결혼 전 사내의 생식기능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이스라엘의 생후 8일째 아이에게 행해지는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앞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스라

## 이스라엘의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표징 "전능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자처하신 은총의 선물

되는 것은 그 절차가 수반하는 피의 고통이다.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미할례 남성의 경우, 현대 유대교에서는 마취를 동반한 외과적 절차와 종교적 절차를 함께 따르도록 한다. 하지만 생후 8일째 되는 아이가 할례를 받을 경우 전통적으로는 마취 없이 의식을 치러왔다. 이 때 설탕물이나 포도주가 가벼운 진정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식 자체가 어떻게 치러지든, 고통의 정도가 어떠하든, 피를 흘린 상처가 아물기까지 고통의 경험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혁파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유대교에 입교할 수

는다는 것이다. 할례를 위한 어떤 값도 치르지 않은 그는 오직 서류상 유대인일 뿐인 것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할례란 피를 흘리는 고통을 수반하는 의식인데, 어느 누구는 돈을 내고 이 고통의 의식을 사며 또 다른 누구는 율법을 지키므로 피의 고통을 치를 자격을 얻고 있다. 참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에 적혀 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말씀을 주신 뒤(19절), 이날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자기 집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23-27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이 지나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제 팔 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는데(창21:1-5), 이렇게 태어난 이삭은 할례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첫 씨라는 점에서 미할례자 아브라함의 고통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할례의 씨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어 갈 것을 말씀하셨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엘의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표징이었다(창17:7, 11). 그리고 이 언약은 "전능한 하나님"(창17:1)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자처하신(7-8절) 은총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폭스(E. Fox)가 관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전 생애를 통해 경험되어야 하기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일찍부터 아이를 할례자로 크며 살아가게 한다.

spark4@gordonconwell.edu

## 성품 칼럼



###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 나의 내면을 보살피는 시간, 성품치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마가복음 16:18)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소개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셨지요. 이런 치유사역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입니다.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팬데믹의 공포와 무기력함 속에 절망의 늪에서 부르짖으며 살아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이기적인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18절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은 뱀을 집어도 다치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치유의 기적들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런 기적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한편으로 성도들이 자신을 지켜야 할 과업입니다.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들, 사람을 기대했던 가족이 나에게 쏟아부는 부정의 말들과 부정의 경험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고, 심한 경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필자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성품이노베이션)을 집필했습니다. 성품이노베이션이란 "나의 성품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는 성품치유의 과정이자,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을 더 좋은 생각, 감정, 행동으로 바꾸는 훈련(이영숙, 2005)"입니다.

성품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한 성품치유 세미나는 1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기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성품이노베이션의 긴 여정 속에서 만난 한 어머니의 성품치유 현장을 소개합니다.

어느 원에서 진행한 부모참여수업 때 한 아이가 울음대열에서 빠져나와 소리를 지르며 마구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그만하고 빨리 이리 와! 정말 나는 너 안 낳고 싶었던 말이야!"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얼굴로 변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원장님이 어머니를 권유해서 지에게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내면의 상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을 건넸는데 엄마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저를 낳지 말 걸 그랬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자랐어요." 부모님께 환영받지 못한 기억, 아이 양육의 막대한 어려움과 거부감, 닳고 닳지 않던 부모님과 비슷해지는 자신을 볼 때마다 드는 자괴감이 엄마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 엄마를 보듬었습니다.

"그동안 상처를 안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누구나 언젠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야만 해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좋은 성품을 회복하면 어머니가 달라지고 소중한 아이에게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게 될 거예요."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태도가 안정적인 자신감으로 나타납니다. 자녀에게 자존감을 주기 위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를 향한 '존재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너를 낳은 것은 내가 한 일 중에 최고로 잘한 일이야."

따뜻한 눈빛으로 속삭여 주세요. 부모가 들려주는 '기쁨의 말 한 마디'가 자녀의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1단계 정의)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토요성품학교/주일학교 성품교육 상담전화 201-693-1976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성품치유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영숙 박사의 <성품이노베이션> 또는 영문판 <CHARACTER INNOVATI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글로벌대학원예배: 오후 7:30 세브키도회: 오전 9:30, 11:30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브키도회: 오전 9:30, 11:30 Tel: (949)446-6200, www.nscsca.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브키도회: 오전 5:40 (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아전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2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브키도회: 오전 6:00 (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org 15411 N. Venice Blvd.,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브키도회: 오전 5:30 (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브키도회 (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a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 (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일)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ible@bkc.org / www.bk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브키도회: 오전 5:30 (월-토) 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실비치사랑교회 (Seal Beach Sr-Rang Church)</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 클럽 하우스 3 Lobby (주일) Clubhouse 3 room 1 (수)</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브키도회: 오전 6:00 (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3>엘피스사역원</h3>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회합동목사) 상담사: (월-금) 오전 10:00~오후 4:30 사역대상: 1. 영성사역 2. 교회 발전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www.elpis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브키도회: 오전 5:30 (월-금), 6:00 (토) 근세세브키도회: 오전 3:55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브키도회: 오전 5:30 (월-토) 성령대위회: 오후 7:20 (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브키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브키도회: 오전 5:30 (화-토) Tel: (310)530-4040 (CH), www.cornestonew.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수요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세브키도회: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s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하늘소망교회</h3>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세브키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수요예배: "아성경이 읽히게"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cbk.kim@cbicse.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강한 자

강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힘이 센 사람 혹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적인 열세나 피해의 차이는 크겠지만 대국적인 측면에서의 결과와 그렇다.

따라서 강하다는 것은 도움을 주는 나라 혹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혼자서 아무리 강해도...

다. 이런 세상의 이치나 풍조와 다르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라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노래했다.

고 장담할 수 있을까? 황혼이 훈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 천부 당만부당이다. 우크라이나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왜 돕고 있을까?

누구 혹은 무엇이 강한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강함을 뽐내는 사람들과 강한 이기주의였다.

hanmackim@hanmail.net



미주장신대 교역학 석사 원목과정을 소개하는 김우빈 교수(우)와 김효남 교수(좌)

미주장신대 교역학 석사 원목과정 개설

"이 과정 졸업 후, 바로 원목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주여겨"

미주장신대(총장 이상명 박사)는 오는 2022 가을학기부터 교역학 석사 원목과정(Master of Divinity in Professional Chaplaincy)을 개설한다.

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수 있게 된다. 미국신학교 가운데 원목과정에 필요한 4개의 CPE 수업을 석사 과정 중에 마칠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비치 메모리얼 병원 원목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기독교 원목 단체인 HCMA 체플린본부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기 시작은 8월 28일부터다. 이번 가을학기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 입학금(admission fee)과 서류 전형료(application fee)가 면제된다.



GMC 합창단이 나성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GMC 합창단 남가주 순회공연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양으로 마음 모아"

세계 11개 국가에 흩어진 24명의 선교사로 구성된 Global Missionary Choir(GMC, 단장 배봉원) 남가주 순회공연이 16일(토)과 17일(주일)에 남가주 4개 교회에서 열렸다.

작하여 연습 할 수 있었고 찬양을 올릴 수 있었다. 1번이 되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남가주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우울증 극복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김재이목사

텍사스 주총회(KBFT) Youth 수련회 성료

Will you Revive us Again?

텍사스 주총회 (KBFT) 주관으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텍사스 타일러에 위치한 자마 글로벌 캠퍼스에서 1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KBFT Youth 수련회가 "Will you Revive us Again? (시편 85:6)" 라는 주제로 은혜 별 캠퍼스에서 150여명이 참석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contact info, including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an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남가주 교계연합 광복 77주년 기념 연합감사예배 드린다

## 8월14일 오후 5시 - 한국의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남가주교계연합(상임대표회장 신승훈 목사)는 광복 77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오는 8월 14일(주일) 오후 5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갖는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7월 18일(월) 오전 11시 감사예배 장소인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신승훈 목사는 “금년에 맞이하는 광복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광복 그 자체가 우리 민족사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크며 교계에서 가지는 의미도 크다”며 “한국의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그래서 교계는 특별히 광복절을 기념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



남가주교계연합이 주최한 제77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며 국가를 가슴에 품고 애국의 기도와 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복절연합예

배 준비위원장 지용덕 목사는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이번 예배를 통해 차세대들에게 역사교육을 심어주며 남가주 교회들과 한인들에게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광복절 연합예배 설교자로는 본국 새이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내정됐다. 소강석 목사는 광복절 연합예배에 이어 8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진행되는 남가주지역 목회자 세미나도 인도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예배 환경속에 어떻게 하면

팬데믹 이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목회자세미나는 소강석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게 되며 로컬교회 목회자들도 강사로 참여하게 되며 목회자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한편 남가주교회연합회는 남가주 지역 미자립 교회 100여 곳을 선정해 1천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출석 교인 50명 이하의 교회 가운데 재정 자립이 어려운 교회로 이 단 교회는 지원할 수 없다. 현재 4만여 달러가 약정되어 40개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됐으며, 100교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가주 교회연합회는 지원서 접수와 선정을 올해 광복절 연합예배까지 마치고, 목회자 세미나 당일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신승훈 목사는 “남가주 교계가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발맞춰 나가고, 교계의 부흥과 화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한다”며 “우리 주위에는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인 교회들을 서로 돌보고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뜻있는 분들의 약정 참여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광복절 연합예배 및 미자립교회 지원에 관한 문의: (714)390-9197 이정현 목사 (박준호 기자)



밸리연합감리교회 안정섭 목사 취임예배에서 교우들이 안 목사 부부에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

# 밸리연합감리교회 안정섭 담임목사 취임예배

##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다”

밸리연합감리교회는 제6대 안정섭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지난 10일(주일) 2부예배시간에 가졌다. 안정섭 목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삶,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매순간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한다”며 “밸리교회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밸리찬양팀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엄광섭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안정섭 6대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졌는데 조한선 장

로(평신도 대표)가 환영 및 감사 인사를 했다. 조한선 장로는 “우리가 섬기는 밸리교회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 담임목사 파송 때마다 교회 상황에 맞는 목회자를 보내주셨다. 안정섭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되며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시무장과 은퇴장로들, 그리고 교우들이 안정섭 목사를 축복하는 기도가 있는 후 양범모 장로가 마침 기도했다. 이어 선물증정과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이날 안정섭 목사가 ‘믿음의 공동체성(창 12: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 회원들

#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 7월 월례회 열어

## 남가주감리교원로 목사회 회원 급증, 100명에 이르러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원목회, 회장 정용치 목사) 7월 월례회가 지난 7월 11일(월) 오전 10시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목사)에서 열렸다. 김태근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백승배 목사가 기도하고 이인기 목사가 ‘동행’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윤삼혁 장로가 초청되어 ‘디지털 혼’을 특별 연주했고 정신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연합감리교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은퇴 목회자들의 친교모임인 원목회는 타주에서 이주해 온 감리교 목회자들이 많고 신임 은퇴 목회자들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년전만 해도 30~40여명에 불과하던 회원수가 현재는 100여명에 이르렀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거의

2년여 동안 대면모임을 갖지 못했으나 금년 봄부터 다시 현장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월례회가 활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은퇴한 감리교 목회자 부부들이 모이는 유일한 친교와 소통의 자리가 되고 있는 월례회는 대부분 은퇴한 목회자들이 섬기던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 모임의 장소로 정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날 점심은 금년 99세를 맞은 조순애 사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들인 조건갑 목사(연감 은퇴목사)가 제공했다. 8월 월례회는 없으며 9월 모임은 오는 9월 24일 나성금란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엘림유학원전에서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한여름 성령집회에서 황형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은혜한인교회 한여름 성령집회

##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살아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한여름 성령집회를 ‘더 깊고 깊은 은혜’라는 주제로 14일(목)부터 17일(주일)까지 황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은혜한인교회 경배와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정호 목사 인도로 시작된 17일(주일) 오전 11시30분 예배는 김정기 장로가 기도했으며 은혜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다시올라가야 합니다(창 35:1-7)’라는 제목으로 황형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황형택 목사는 “창세기의 야곱은 속이는 자였다. 축복권과 장자의 권한도 갖게 되었다”며 “그러나 야곱은 암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황 목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리며 변화되었지만 벨엘이 아닌 세겜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렸다”라 말하며 “벨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곳이

며 살고있어야 하는 장소다. 벨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목사는 “신앙생활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신앙의 삶속에는 오름의 원칙이 있다. 신앙은 체험이다.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하며 찬송하며 눈물흘려야 하고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며 “하나님을 만나 루스를 벨엘로 벨엘을 엘벨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곳에서 떠나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는곳마다 제단을 쌓아 벨엘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강해지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베델교회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에서 주중훈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 서부교계 게시판

## 2022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

이 나라와 교회, 가정,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자가 더욱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8월8일(월)부터 13일(토)까지 영상으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한기홍목사(은혜한인교회), 김준근교수(JAMA), 호성기목사(필라안디옥교회), 강민수목사(시카고 레이크뷰연합교회), 하연행목사(뉴욕 프라미스교회), 위성교목사(북가주 뉴라이프교회), 안지옥목사(매릴랜드 새소망교회), 강순영목사(JAMA), 김은애 권사(QT Life Mission)가 강사로선다.

▲ 문의: (310)995-3936 conference@jamaglobal.com

## 2022 빛내리 발달장애인 VBS

달라스빛내리교회(담임 정찬수 목사)는 2022 빛내리 발달장애인 VBS가 8월4일(목)부터 6일(토)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열린다.

▲ 문의: (214)934-2935

## 헤리티지 찬양팀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블랙가스펠 찬양팀 헤리티지 초청 미니 찬양콘서트를 청년예배시간(오후 1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323)227-1400

## 세미한 장학회 장학생 선발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 마감은 8월 13일까지이며, 대상은 단과대학/4년제 대학/대학원/신학교/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제외)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나눔터-문서자료실)를 참조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세미한 장학회(scholarshipse미한@gmail.com)

## 한인가정상담소, KFAM 자산관리클래스 개최

한인가정상담소 (KFAM 소장 캐서린 염)는 기초 자산관리에 관심이 높은 한인을 대상으로 ‘KFAM 자산관리클래스’를 8월3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줌(Zoom)으로 열린다. 클래스는 KYCC 지역경제개발서비스팀 백해원, 리즈 김 담당자가 강의 및 상담 형태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며,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클래스 참여신청은 tinyurl.com/KFAMfinance로 하면 된다.

▲ 문의: mlee@kfamla.org

## 텍사스 주총회(KBFT) Youth 수련회 성료

(9면에서 계속)

강사로 초청된 김재이 목사(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담임)는 첫날 저녁 “Are you Real?”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참 믿음과 회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 저녁에는 “What should we do now?”라는 주제로 믿음을 가진 학생들이 이 땅에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김목사는 특유의 유머와 열정의 말씀 가운데, 40여 명의 학생들이 선교사 혹은 목사로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을 갖게 돼, 그 어느 집회보다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뜨거운 집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김재이 목사는 브레이크 아웃세션 가운데, 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증, 염려, 중독, 외모, 마약, 자살충동 등에 대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무명으로 써낸 청소년들의 노트에는 반 이상이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 밖에 가난, 외로움, 자신감 결여, 놀림, 왕따, 가정폭력, 아픔과 상처가 학생

들의 삶을 덮고 있었다는 말을 전했다. 특별히 9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진웅 목사(뉴라이프교회 교육목사)는 브레이크 아웃세션으로 “Biblical Purity”를 다루며, 유산, LGBT, 성적순결 등에 대한 강의를 다루었고, 또, 수련회 진행을 맡았던 Joshua Kim 형제(리즌교회)는 “Collegiate Christianity”라는 주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의했다.

주총회 영어분과 상임위원으로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디렉터로 섬기는 김민철 목사(리즌교회)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수련회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영적인 디프렌션을 경험한 학생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한 교회들과 함께 금식하며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실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번 수련회를 위해 봉사해준 모든 봉사자들과 교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기사제공: 텍사스 주총회(KBFT))

# 베델교회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 다민족다인종 사회에서 함께 공존할수 있는 방식 찾아야

베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15일(금)과 16일(토) 양일간 개최했다. 16일(토) 오전 주중훈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가 ‘CRT가 제기한 인종에 대한 기독교 신앙 실천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주중훈 교수는 “비판적 인종이론이 쉽게 우리를 자극하고 반응을 요구한다. 인종과 관련된 접근은 똑같이 찾아오지만 어떤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CRT는 인종과 관련된 문제가 접근되어 올 때 복잡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불안해하며 접근하지 않고 확신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다민족 다

인종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인종의 문제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이다. 함께 공존할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라며 “CRT의 의미를 우리는 바꾸어야 한다. 민족과 인종에 대해 CRT와 성경의 차이는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중훈 교수 외에 정승원 교수(총신대학교 부총장 겸 신학대학원장)가 ‘젠더비판이론’, 조영천 목사(아틀란타 새교회 담임, 필라델피아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겸교수)가 ‘역사적 관점에서 본 비판이론’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 광림교회 청년 미자립교회 여름성경학교

### 청년 250여명 3년 만에 태백 등 12개 지역으로

서울 광림교회(김정석 목사) 청년들은 2007년부터 매년 여름이면 이색적인 행사를 열었다. 바로 전국 미자립교회의 여름성경학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국내교육선교'다. 이 교회 청년들은 행사가 시작되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지방의 작은 교회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름날의 추억을 쌓곤 했다. 직장인 중에는 국내교육선교에 참가하는 것으로 여름휴가를 같이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18일 광림교회에 따르면 이 교회 청년선교국은 21일부터 국내교육선교를 시작한다. 청년 250여명은 세종을 시작으로 강원 태백, 경기 가평, 전북 순창, 충북 충주, 대전, 경기 이천 남양주 하남, 대구, 강원 고성, 충남

천안 등 12개 지역으로 흩어져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광림교회 청년들은 올해 국내교육선교를 통해 100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1200명을 만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림교회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벌이는 것은 지방의 작은 교회들이 처한 현실이 파악해서다. 중대형교회는 자체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거나 외부 선교회가 주관하는 여름 캠프에 아이들을 보내지만, 농어촌 미자립교회는 이런 일을 하기 힘들다. 교사도 부족하고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 교회의 올해 행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3년 만에 재개되기 때문이다. 광림교회는 코로나19 탓에 2019년을 끝으로 행사를 열 수 없었고, 청년들은 작은 교회들이 여름성경학교를



여는 데 보탬이 되는 교육자나 마이크, 아이들을 위한 과자나 장난감 등이 담긴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었다.

광림교회 청년들은 국내교육선교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강습회와 팀 모임을 잇달아 가지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구 지역 팀장을 맡은 서준영씨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뤄지는 귀한 선교가 됐으면 한다"고 했고, 태백지역 팀장인 정영희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신앙이 성장할 거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함께 걷는 기독교학교 꿈꿔요”

###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코로나 팬데믹과 사학법 개정, 사학 공영화로 기독교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한기학연)가 16일 경신중·고 언더우드기념관에서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기독교학교 교육활동을 회복하고 학교들이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1952년 설립된 한기학연은 성경적 전인교육을 위해 신앙 안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독교학들의 연합체로 현재 초·중·고 130개교가 회원 학교로 가입돼있다. 한기학연은 앞서 지난 12월 경신중·고 언더우드기념관에서 70주년감사연합예배를 드렸다. 감사연합예배에는 경신중·고 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송덕영중·고, 대광고, 정선여고 등 5개 기독교학교 학생들이 함께 했고 전국의 50여 개 기독교학교가 줌과 유튜브로 동참했다.

16일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2부 교사 연구 프

로젝트 발표, 3부 전국학생중장년대회 본선, 4부 흥베식 한기학연 회장의 '80주년을 기약하며'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표창장 수여식과 학생영상경연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경주 팔복교회 김형기 목사와 장신대 박상진 교수, 한기학연 김서영 간사가 한기학연 발전 공로로 표창을 수상했고,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공모한 학생영상경연대회에선 정선여고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돼 이날 시상식이 진행됐다.

2부 교사 연구 프로젝트 발표에선 기독교학교 교사들이 발표 소 갖고 있던 수업과 교과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발표에 나선 6명의 교사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교과수업, 시대와 조화로운 예배, 학급 운영, 학생 동아리, 교사 동아리, 기독교학교 신입교사교육 총 6개의 주제로 기독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혜와 열정을 나눴다.

기념행사 하이라이트는 3부 전국학생중장년대회 본선이



국내 합창단이 해체됐는데 대회를 계기로 다시 합창단을 조직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합창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예선을 거치고 올라온 13개 학교가 이날 본선 경연을 벌였고 대상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른 정선여고 노래선교단이 차지했다.

한기학연 이영선 이사장은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7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이라며 "(기독교학교들이) 오늘날 과거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고 모든 학교가 협력하고 정보를 나누며 학교 설립 목적을 잘 완수해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한기학연 흥베식 회장은 "7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고 발전해 130개 학교가 됐고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 재유행 비상... 교회, 선제대응 나섰다

### 여의도순복음, 17일부터 발열체크, 일부 거리두기 재시행...

코로나19 재유행 시점이 빨라지면서 교회와 선교단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당장 주일예배 등 정기적인 교회 행사를 비롯해 여름철 수련회와 단기선교 행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교회는 팬데믹 기간 실시했던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소모임 자체 등을 재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를 재시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17일 주일부터 발열 체크를 다시 한다. 대상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10일 주일예배 광고를 통해 "최근 하루 확진자 2만명이 넘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한다"면서 "다음 주일예배부터 성도들은 예배당에 출입하기 전에 모두 발열 체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장소를 마련해 별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배 중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점원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키로 했다.

서울 동대문의 A교회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배당 입구에 발열 체크기를 다시

설치하는가 하면 좌석 거리두기도 재시행한다. 소그룹 모임도 상황에 따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A교회 관계자는 13일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원 가능성을 차단해 교회 활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에 있는 B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4월 이후 재개한 사역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다시 모임과 행사를 중단하면 교회 회복세가 완전히 꺾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회 관계자는 "당분간 거리두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사역을 이어가려 한다"면서 "당장 모든 모임과 행사 등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를 준비하는 청소년 사역기관이나 선교단체들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요 여름행사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사이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수련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정부 방역 조치 변화에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자가 진단키트 구비, 숙소배정 조정 등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다음세대 사역 전문 기관인 브리지임팩트는 다음 달 1~3일, 4~6일 두 차례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각각 1000명이 모이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단체 대표 정병진 목사는 "타 교회와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교회별로 숙소, 샤워 시설, 조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수시로 열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27일과 28~30일 대 전 한국침례신학대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는 네임리스(전 기독교학생대회) 관계자는 "1·2인실 위주와 교회 단위로 숙소를 배정하는 한편, 충분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3년 만에 다시 열린 퀴어 행사

### 교계 “건전한 성문화 해체 비윤리적 운동” 비판

성소수자들의 행사인 '서울 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린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대응도 거세게 나타났다. 기독교 단체들은 퀴어 행사를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해체하는 비윤리적이고 위헌적인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16일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세종대로 일대에서 '맞불' 집회 및 행진을 벌였다. 준비위는 성명에서 "퀴어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인권을 빌미로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해체하는 비윤리적이고 위헌적인 운동"이라며 "퀴어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한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

준비위 관계자는 "퀴어축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동성 간 성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음란성 있는 공연 활동, 물건 판매 및 유포, 시위를 공공연히 시행해 이를 보는 시민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고통

을 줬다"며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인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도 결코 부합할 수 없는 행사"라고 밝혔다.

반대 준비위 전문위원장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국민 간 찬반의 가치가 격돌하는 사안에 대해 국가는 마땅히 중립의 위치에 서 각 국민이 지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퀴어축제 개최를 허용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도 반하고 국가 중립의 무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셴다. 크로스로드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반과학적·반윤리성을 끼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이는 에이즈확산병 동성애확산병 역차별조장법 부도덕강요법 종교탄압법 인권탄압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퀴어 퍼레이드를 비롯한 오프라인 축제 행사를 허용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시민활동가 등으로 이뤄진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다. 단, 위원회는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 전시를 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서울시는 해당 조건을 어길 경우 내년부터 서울



광장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퀴어축제는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참가했으며 퀴어 조직위는 집회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이 같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퀴어축제 참가자들은 무지갯빛 옷을 입거나 무지개색 머리끈, 마스크 등의 소품을 착용했다. 신체 과다 노출 규제 강화로 과거에 비해 선정성은 덜했지만, 간간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복장도 보였다. 이들은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을지로입구와 종로 명동을 거쳐 돌아오는 퍼레이드를 진행했으며 서울광장에서 축하공연도 펼쳤다.

행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참석했다. 그는 "어느 곳에서의 차별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미국의 헌신을 증명하고 싶어 행사를 참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행사엔 유럽연합(EU)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 주한대사도 참석해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 포스트코로나 軍선교, 패러다임 전환...미시적 접근법 중점

### 관문선교 붕괴, 군내 분위기 변화, 패러다임 전환 목소리

한 때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며 다음세대를 키우는 귀한 터전이었던 군선교 현상이 지금은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선교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례숫자나 엄숙한 신앙만을 강조하는 거시적, 양적 측면에서 벗어나, 개별 군인들의 정서에 가깝게 다가가고 지속적인 신앙을 도모하는 미시적,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국내 교회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16일 교계에 따르면 세례를 받는 군인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선교 운동본부가 설립됐을 때인 1999년에 약 22만명에 달했던 세례 군인 수는 2011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9년에는 약 12만3000명으로 축소됐다. 급기야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급격히 감소해 2020년 약 3만명, 지난해엔 약 2만명으로 줄었다.

현재 군인교회의 대면예배 상황도 녹록치 않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군인교회의 경우 코로나 이전 450명 가량의 군인이 예배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불과 50명의 군인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강원도에 있는 또 다른 군인교회는 군인들의 대면예배 참석 규모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인교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면예배에 참석하는 군인들의 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 최대 65% 가량 감소했다"고 전했다.

군선교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우선 '관문선교'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관문선교는 각 군 훈련소, 사단급 신병교육대, 육군사관학교 등 학교기관에서의 기초적인 선교를 의미한다. 여기서 대다수 무종교인인 훈련병과 간부후보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서 파송하면, 실무부대에서의 원만한 양육으로 이어져 큰 결실을 보곤 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중 관문선교 현장에서 종교활동이 상당히 제약

을 받게 됐다. 그 결과 무종교 비율이 높은 장병들이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 자대에 배치된 게 됐고, 대대급 교회를 섬기는 대다수 민간 성직자들의 부대 출입과 장병 접촉도 제한돼 자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군대 내 분위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군인들의 인권 신장과 더불어 '무종교도 종교'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지휘관이나 삼급자가 종교행사 참석 권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율에 맡기는 현상이 일반화됐다. 아울러 휴대폰 사용 및 외박 확대, 병영 부조리 감소 등 군인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많이 사라지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군인들이 크게 줄었다. 경북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장병은 "과거엔 교회 등 종교가 힘든 군 생활을 위로받을 수 있는 안식처로 여겨졌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며 "하지만 복지 향상이라는 대체할 공간이 마련되면서 이젠 쉽사리 종교를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 기간 중 커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 있다. 일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모임과 예배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지켜본 군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의 배타적, 독선적인 이미지가 강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최근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군 선교도 패러다임을 전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례 숫자나 엄숙한 신앙 등 거시적, 양적 측면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양육과 신앙 지속이라는 미시적,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군 선교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군인들과의 정서적 친밀감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여 년을 군 선교사로 활동해온 김기문 목사는 "그냥 무개를 잡고 신앙과 성경만으로 간다면 요즘 MZ세대 군인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앞서 군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로 접근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후 신앙적으로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종교성'을 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주제로는 단순 취미에서 미래 비전 등 다양하다. 특히 군인들은 전역 후 진로, 경제, 연애 문제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제를 두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정서적으로 밀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공동체는 군부대 내에 있는 여타 동아리처럼 만들거나 군인교회 내에 조성한다. 25사단에서 군선교를 하고 있는 최광수 군종목사는 "젊은 군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개인화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어딘가에 소속돼 연대하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학습 위주나 아닌 나눔 위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까워지고, 주제와 관련된 감성도 불러 전문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효율적인 양육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 목사는 군인교회에 'TEE 공동체'라는 건강한 나눔 공동체를 만들어 적잖은 선교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나아가 전역 후도 신경을 써야 한다. 보통 현역 군인들의 신앙은 전역 후에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이는 기존 선교 방식이 주로 현역 세례에만 집중된 반면 전역 후는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군인들의 지속적 신앙을 위해서는 거점, 결연교회를 많이 모집하고 이곳으로 연결되는 군인들을 크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 교계 관계자는 "군대에서 양육, 관리 후에 결연교회 등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군선교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군인에 대한 사역 효과가 군 시절에만 그쳐서는 소용이 없고, 이들이 진정한 교인으로 거듭나 계속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필수"라고 전했다.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13)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섬김으로 맛보는 기적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와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개최되어 1000여 명의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선교사 자녀, 미주의 MZ 세대가 자리를 같이했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여 팬데믹을 뚫고 모임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여 6년 만에 가지는 선교대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였다. 점점 약화되는 것 같은 미주한인교회의 선교 열기와 선교사 숫자 증가가 멈춘 한국교회의 보고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하였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나간 28,000여 한인 선교사 숫자는 많이 감소하여 23,000여 명으로 보고 되었다. 팬데믹은 교회의 모든 활동을 제약하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아예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들이 후원이 안 되고 갈 곳이 없어 농장의 온실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반신반의하며 시작된 대회였다. 결과는 대부분의 반응이 아주 필요했고, 좋았다는 것이었다. 선교대회의 가장 가까운 기

대효과는 참석한 모두, 특히 선교사들이 함께 만나 힘을 얻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버려진 것 같은 선교지가 아니라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되던 선교지 밖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질천 인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선교대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힘을 얻는 기회이다.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한 선교사들 가운데 남태평양의 피지에서 참석한 분이 있었다. 꼭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중학교 때에 자신에게 선교에 대해 눈을 뜨게 한 선생님 선교사를 만났다. 그들이 이름을 서로 확인하고 연락이 되어 만났을 때 주님은 오랫동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였다. 선교대회가 열린 와싱턴중앙장로교회는 모든 참석자를 위한 의료실을 열고 섬겼다. 의료하며 지내오던 중 막내 자매는 목사와 결혼하여 담임목사 사모로서 의무실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한 흰머리의 늙은 선교사 이름이 자신을 의사로 만든 동기를 부여한 이름이라는 것을 보고 놀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선교사는 영문을 모르고 만나서 자신이 직접 도전하지도 않았던 어린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확인한 것이다. 지금 다섯 살짜리 아들은 목사가 되어 그 선교지를 지키고 있고 세 자매는 의사가 되어 모든 가족이 힘을 함께 원격의료로 통해 선교사를 돕겠다고 의료 선교단체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 선교대회는 이런 만남을 통

있었다. 대회가 시작된 이를 때에 부모님께 다음에도 꼭 나를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 너무나도 좋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섬겨 주신 선생님들은 선교대회에 자신은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하셨지만 선교의 중요한 자원들이 될 꿈나무들을 키우는 데 물을 주고 가꾸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다.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음에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로 섬겨준 준비위원들의 헌신의 힘이었다. 또한 발달한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브라질에서 미국의 이곳저

곳에 흩어진 다양한 준비위원들이 좁이라는 이기를 통해 만나고 대화하며 선교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각자 다른 여섯 개의 단체 사람들이 함께 만나 일을 나누고 종합하여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대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보여준 성숙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대회의 준비책임은 맡고 있는 나 자신은 준비위원들에게 이번 대회를 통하여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일에 시달려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열심히 준비하며 은혜가 넘쳐나는 것

이 선교대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교대회 기간 내내 참석자들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섬겨 주신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모습에 감격하였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 열린 선교대회의 큰 장점은 교회의 인적자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선교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이 일반적으로 도착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도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봉사가 필요하다. 필요한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해 나선 운전자는 미시간 주에서 유명한 외과의사로 섬겼던 은퇴하신 장현식 장로님이었다. 장장로님은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부터 참석하셨다. 그 후 이제는 고인이 되신 류효명 장로님과 함께 평신도 선교운동본부를 만들고 평신도 선교자원을 동원하는 일에 많은 수고를 하였다.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선교사들을 위한 많은 의료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은퇴 후에 에티오피아 명성병원에 가서 3년 동안 아프리카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돌아와 워싱턴 지역으로 이사를 온 것이다. 그런데 선교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먼저 자원하여 도울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섬김을 통해 자신들이 가장 큰 보람과 긍지를 느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가득 부어 넣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알았던 것처럼 선교대회의 기적은 물 떠 온 하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참된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다.

dr.yongcho@gmail.com

## 선교대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질천 인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해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힘을 얻어 돌아가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한 알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힘을 제공한다. 선교대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모두가 서로 섬기는 자리이다. 참석한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발휘되는 종합 예술이다. 어른들을 위한 대회와 함께 50여 명의 아이들을 위한 모임이 함께 있었다. 이번 대회에는 교통비의 큰 부담이 많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선교대회에 꼭 참석하고 싶어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한 분들도

곳에 흩어진 다양한 준비위원들이 좁이라는 이기를 통해 만나고 대화하며 선교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각자 다른 여섯 개의 단체 사람들이 함께 만나 일을 나누고 종합하여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대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보여준 성숙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대회의 준비책임은 맡고 있는 나 자신은 준비위원들에게 이번 대회를 통하여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일에 시달려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열심히 준비하며 은혜가 넘쳐나는 것

이 선교대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교대회 기간 내내 참석자들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섬겨 주신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모습에 감격하였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 열린 선교대회의 큰 장점은 교회의 인적자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선교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이 일반적으로 도착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도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봉사가 필요하다. 필요한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해 나선 운전자는 미시간 주에서 유명한 외과의사로 섬겼던 은퇴하신 장현식 장로님이었다. 장장로님은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부터 참석하셨다. 그 후 이제는 고인이 되신 류효명 장로님과 함께 평신도 선교운동본부를 만들고 평신도 선교자원을 동원하는 일에 많은 수고를 하였다.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선교사들을 위한 많은 의료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은퇴 후에 에티오피아 명성병원에 가서 3년 동안 아프리카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돌아와 워싱턴 지역으로 이사를 온 것이다. 그런데 선교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먼저 자원하여 도울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섬김을 통해 자신들이 가장 큰 보람과 긍지를 느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가득 부어 넣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알았던 것처럼 선교대회의 기적은 물 떠 온 하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참된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다.

dr.yongcho@gmail.com



##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 32 헤롯 가문을 소개합니다 4 헤롯 안디바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의 왕들을 영토와 권력 서열을 정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첫째는 헤롯 대왕, 둘째 헤롯 아그립바(행12장), 셋째 헤롯 안디바(눅23:8), 헤롯 아켈라오(마2:22) 그리고 헤롯 빌립왕(눅3:1)순입니다. 그들의 칭호, 영토 그리고 로마황실과의 관계를 정리해봅니다. 헤롯 대왕은 집요한 권력욕과 정치 감각으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전 지역을 장악한 실제적 왕이었습니다. 헤롯 손자 헤롯 아그립바1세는 아버지 아리스토틀로스가 할아버지 헤롯 손에 죽자, 어머니 베르게와 함께 로마로 피신했습니다. 어머니 베르게가 당시 로마 실권자들과 교제하였고, 아그립바는 훗날 로마 황제들이 될 황실 자제들과 함께 성장했고, 그들이 황제가 되자 할아버지 헤롯과 동등한 수준의 영토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헤롯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세례요한 침수와 예수님 재판에 개입했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인 마나엔(행13:1)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빌립과 아켈

라오와 함께 분봉왕이 되었지만, 이들이 추방과 사망으로 왕위를 떠나자 헤롯 안디바가 잠시 헤롯 가문의 유일한 왕으로 유대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를 여러

차례 제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건설공사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건축한 대표적인 건축물이 갈릴리 호수 변 도

단 아켈라오는 권력욕과 약정으로 조기 퇴출당합니다. 헤롯 빌립은 선한 왕이었고, 백성과의 관계나 로마 황실과의 관계가 원만했지만, AD 34년에 죽습니다. 헤롯 빌립마저 죽자 그때까지 남은 유일한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왕으로 칭합니다. 형들의 퇴장으로 분봉왕 안디바가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지역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출신의 말다케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말다케에서 태어난 형은 베들레헴 지역을 관장한 분봉왕 아켈라오(Herod Archelaus)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다른 이복형들처럼 로마에서 성장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어린 시절을 유대 땅에서 마나엔(행13:1)헤롯의 셋 동생 마나엔)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던 아들들을 믿지 못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사망했던 아들들 알렉산더, 아리스토틀로스, 그리고 안티파터를 사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형들이 죽자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서 돌아와 권력을 승계하여 왕으로 취임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로마의 교육 덕분에 아주 친로마적인 정책을 펼쳤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악한 통치자였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질타를 받았던 왕입니다. 요세푸스는 헤롯 안디바가 세운 몇 개의 도시를 소개합

베라를 건설합니다. 이 디베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폴리스 형태의 헬라적인 도시입니다.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라는 책을 쓴 달라스 신학교 신약학 교수 해롤드 회너(Harold W. Hoehner)박사는 탈무드를 인용하면서 디베라가 여호수아 19장 35절에 등장하는 락 곳이라고 합니다. 안디바가 건설한 디베라는 상업과 무역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 도시를 당시 티베리우스황제 이름으로 디베라로 부르며 황제의 환심을 사려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나비테이아 왕 아레타(Aretas) 왕(고후 11:32)의 딸 피갈리스와 결혼했습니다.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던 그는 이복동생 빌립부와 함께 묶였습니다. 이 만남에서 자신의 조카이자 이복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합니다. 권력 지향적인 헤로디아와 의기투합해 둘은 결혼합니다. 이에 분노한 아레타 왕이 침략함으로 헤롯 안디바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가 황제의 든든한 지원으로 '왕'이 되어 돌아오자 그의 누나 헤로디아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녀는 남편 헤롯 안디바에게 로마 황실에서 정식 '왕'의 칭호를 받아 오도록 충동질했습니다.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로마 칼리굴라 황제는 안디바를 폐위시키고 추방시킵니다. 이로써 헤롯 안디바는 형 아켈라오처럼 폐위되고 형이 추방되었던 곳(현재 프랑스의 골(Gaul)지방)으로 추방됩니다. chap1207@hotmail.com

## 헤롯 안디바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헤롯 친로마 정책을 펼치며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을 무시한 악한 통치자로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질타를 받았던 왕

로 비교했습니다. 마가는 세례요한이 헤롯 안디바 비행을 지적하여 사형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죽인 이유를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민중이 세례요한을 대대적으로 지지하자 유대인과 세례요한의 민중 봉기를 두려워해서 그를

시 디베라입니다.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 수도였던 파나이온을 고치고 확장하여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하려고 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베라에서 예수님께서 두 기적(오병이어/요6, 물고기 153 마리 잡는 기적/요21)을 베풀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영토를 분할했

그런데 헤롯은 자기 아들들 즉 안티파터, 알렉산더, 아리스토틀로스,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 등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서 기초 교육을 받고, 13세에 로마로 보내서 인질 겸, 유학생으로 로마의 머무르다가 17.8세에 유대로 복귀하게 했습니다. 헤

로 안디바는 어린 시절을 유대 땅에서 마나엔(행13:1)헤롯의 셋 동생 마나엔)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던 아들들을 믿지 못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사망했던 아들들 알렉산더, 아리스토틀로스, 그리고 안티파터를 사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형들이 죽자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서 돌아와 권력을 승계하여 왕으로 취임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로마의 교육 덕분에 아주 친로마적인 정책을 펼쳤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악한 통치자였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질타를 받았던 왕입니다. 요세푸스는 헤롯 안디바가 세운 몇 개의 도시를 소개합



##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 월 너무 늦기 전에(수7:1~26) 찬 407장

여리고 성을 함락 시킨 후, 아이 성을 공략합니다. 여호수아는 삼천 명쯤 되는 군사를 아이 성으로 파병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패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패전의 원인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아간이 지목되었고, 아간은 자신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신의 장막 땅속에 감추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죄를 범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간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시는 과정은 '제비뽑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간을 뽑지 않으시고 아간을 향하여 점점 다가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살마 나를 지목하겠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간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 화 승리에 필요한 두 가지 (수8:1~29) 찬 350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 삼만 명을 모으고 아이 성을 공격합니다. 군대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약 오전 명기량의 한 그룹은 벤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고, 다른 한 그룹은 아이 성을 공격합니다. 치밀한 전략으로 공격하여 아이 왕을 사로잡아 죽임으로 아이 성 전투는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패배(수 7장)와 승리(수 8장)를 경험하게 됩니다. 패배와 승리의 장면에서 다른 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거룩'입니다. 패배할 때는 아간의 범죄함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8장에서 이스라엘은 범죄함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중'입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8장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였습니다. 승리에 필요한 두 가지는 거룩과 정중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 수 기도하지 않아서 실수합니다 (수9:1~15) 찬 364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중앙부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온 가나안 땅에 빠르게 소문이 났습니다. 가나안과 그 주변에 사는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항복하여 목숨을 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낡은 신과 옷,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과 행색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사흘이 지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수 9:14b)."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실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 목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수10:12~15) 찬 357장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 항복하고 화친하였다는 소식을 가나안 남쪽 지역의 왕들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기브온 주민들을 괴롭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벱을 중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라기스 왕, 예글론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가서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연합군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을 맞고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

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홍수 심판 이후에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며, 태양이 기브온 위에 멈추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도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싸울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십시오.

### 금 작은 불씨가 큰 불입니다 (수11:21~23) 찬 449장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나안 남쪽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하술 왕 아비니가 들었습니다. 아비니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하여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메롬 물가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을 섬멸하였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고(수 11:8).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

문'입니다(수 11:9). 그러나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있는 아나 자손들은 멸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겨진 자들은 훗날 이스라엘을 지독하게도 괴롭히는 블레셋 연합이 됩니다. 마치 남겼던 작은 불씨가 나중에 큰 불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보이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큰 죄로 커지게 됩니다. 충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후에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 토 성도의 기업은 사명입니다 (수14:1~5) 찬 450장

요단 서편(가나안 본토)의 땅은 제비를 뽑아서 아홉 지파와 반 지파(므낫세의 남은 절반)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33장 10절에 근거한 '사명'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날 레위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속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 교회음악 이야기(16)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 작곡가 김두완, 그리고 본향을 향하네

한국 교회음악의 부흥이 시작된 시기는 교회의 급속한 성장의 시기인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교회의 성장과 함께 발맞추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교회음악의 대중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인물을 떠올리면 김두완 박사입니다.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김명엽 지휘자가 김두완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화성이 쉽고 단순하지만 멜로디는 누구의 작품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지방 어느 작은 교회에서든 연주할 수 있도록 쉽게 작곡한 것으로 보아 '대중 교회음악 작곡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범한 것이 실제로는 평범한 것이라는 역설을 펼치며 가장 평범하게 음악을 만들었던 그의 교회음악 철학이 결국 한국 교회음악의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쓴 많은 찬양들 가운데 "본향을 향하네"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칸타타 "순교자"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서주 성격의 찬양입니다. 작사자 김희보께서 쓴 글을 가지고서 작곡하게 되었고, 이 칸타타 첫 페이지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복한 교회의 성직자에게 이 곡을 바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그의 아버지 되시는 김치근 목사입니다. 평안남도 용강 출신으로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북한군으로부터 순교를 당하셨습다. 결국 김두완 작곡가는 아버지를 추모하며 인생의 순례 여정을 마치며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이 곡을 바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작곡하였기 때문에, 더욱 깊이있는 훌륭한 곡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김두완 작곡가의 가장 대표적인 성가곡으로 남게 되었고, 오늘날 까지도 한국 교회의 크고 작은 교회의 성가대가 찬양하며 깊이있는 영감을 불러넣게 됩니다. 이러한 열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되며 이러한 찬양을 하다 보면 목이 메이다 울먹이기도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순례의 여정을 밟고 있는 우리 인생이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확인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중심 소재는 성경 히 11: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를 가지고 저자가 찬송시를 전개해 갔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저자가 쓴 믿음 장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지닌 지혜로움을 이야기 하는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땅을 사모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천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좀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C.S. 루이스(C.S. Lewis 1898-1963)는 "하늘에 있는 파이에 침을 흘린다는 놀림을 받지 않을까, 지금 이곳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등진 채 행복한 별세계의 꿈속으로 도피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정말 파이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파이가 없다면 기독교는 전부 거짓입니다. 천국의 교리는 기독교 전체를 엮고 있는 씨줄과 날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론에서 보듯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결정체는 분명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소망 삼아 순례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한 믿음의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적은 일들에 낙심하고 부당한 일들에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돈에 이익에 집착하려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욕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더한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즉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힘쓰며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한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천국, C.S.루이스가 확인하는 그 천국을 작곡가 김두완 박사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하여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대중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찬양하게 하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사역을 평생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는 탐미주의적인 음악세계를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는 영적인 찬양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려는 그의 음악 철학 속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지극히 평범한 일을 탐구하는 가운데 비범한 교회음악의 세계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음악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에게 주는 교훈으로 가슴에 새기게 합니다.

iyoon@wmu.edu



#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장소** 미정(추후 발표)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 NIV, KJV(or NKJV) 중 택일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 하늘가족

**광고후원** :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이사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 뉴저지평화기도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어수사 (대표: 김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1등상: \$500  
▶ 2등상: \$300  
▶ 3등상: \$150  
▶ 장려상: 0명 - 상품  
▶ 회연소상과 최고평상: 상품 및 상장

GOD IS LOVE





신코 편지

인도

할렐루야! 무더위와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이기는 자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선교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기에 감사하며, 현장 선교보고와 기도제목을 올리겠습니다.

♥ NCTS 아웃리치 보고

인도에는 5월과 6월이 가장 최고로 더운, 델리는 45도~50도까지 올라가고 뜨거운 수돗물이 나오며, 인부들도 일하기 꺼려하는 시즌이지만 저희 NCTS 신학생들은 아랑곳없이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이후 힌두의 핍박은 더 심하여 교회 2층건물을 불도저로 밀어버려 성도들의 마음쓰린 눈물로 흘리게하고, 믿는 가정들의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리는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학생들은 6월에도 계속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읽고 녹음하며,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니 매일 성령충만을 입고 아웃리치 나갑니다.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땅에 2,400백만의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하는 주님의 뜨거운, 애끓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주님, 늘 저희 NCTS 신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수 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생명영계 하심에 큰 감사를 드리며, 동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랍게 축복하옵소서. 5월에는 17곳에서 160명

의 신학생들이 388가정을 방문하여 1,667명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그중에 1,227명이 주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신학생들이 매주 방문하여 예수님에 대해 더 가르치기로 하였지만 영접한 모든 분들은 가까운 교회로 매주 나갈수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인도에 핍박은 사라질지이다. 늘 이기는 자로 다시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 람쁘르 센터 소식

고아들과 신학생들 보통 25명이 상주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아웃리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월부터 매달 텐트 힐링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도 듣고 고침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힐링집회 후 말씀집회를 통해 저희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에 대해 선포하였습니다.

고침받은 사람들과 청년들이 3일째 텐트집회에 모였는데 400여명이 모였고 이날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영접하며 고백한 사람이 93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람쁘르센터에 용에게 일어났던 참담한 자연재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만원가량 투자한 태양광 10Kw가 폭풍에 뺏기고 쓰러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지붕 쓰레트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교회 안에 있던 아이들에게 큰 일이 일어날뻔 하였지만 일찍 피하였습니다.

망연자실 하였지만 입에서

는 주님 감사합니다. 왜! 밤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기도를 계속 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복구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단장되게 하소서~

♥ 성전건축의 영광

이러한 어렵고 난리인 시국에도 저희 NCTS 교회들은 여기저기서 성전건축에 한창입니다.

찬디가르 소한 목사님, 안드라 뿌라데쉬 라주 목사님, 블렌체드의 제이벌 목사님, 차티스가르의 자야단 목사님, 가지야바드의 데브 목사님 총 5군데의 성전건축과 람쁘르,나갈랜드 국제신학교까지 합 7곳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또한 NCTS교수님들의 영적 가르침으로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땅에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토네이도 폭풍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끝까지 자재비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완공되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 나갈랜드 국제 신학교 건축 공사

백만선교사 파송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던중 나갈랜드에 드디어 NCTS의 신학교건물 건축을 위해 비 속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였고 마중물로 헌물해주신 예물로 자재들을 구입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6면으로 계속)

가정 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57. 결혼의 정의

탈무드에서 "결혼이란 굴레는 매우 무겁다.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함께 운반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혼자 살 때는 본인만 책임지면 되지만,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와 자식이라는 평생 책임져야 할 사람이 더 생깁니다. 내 어깨에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이를 잘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생 후회 없는 결혼생활을 위하여...

그런데 결혼이 무엇인지? 왜 결혼해야 하는지? 의미와 뜻도 알지 못하고, 생면부지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가정을 이루어 가다 보니, 가정의 문제가 양산될 수밖에

- 5. 결혼은 상호 충성의 서약이고, 상호 복종의 합작관계이다.
6.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원하는 남자와 여자가 되도록 사용하실 정제의 과정이다.
7. 결혼은 우정의 한 형태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다.
8. 모든 결혼은 그 자신의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한 쌍의 지문과 같다.
9. 결혼은 사랑과 생명이 샘솟는 원천이며 그 자체가 불가피한 삶의 기본이다.
10. 결혼은 인생 최고의 황금기이다.
11. 결혼은 잃어버린 자기의 분신을 찾는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은 원래 남녀가 한 몸이었는데, 신의 노여움을 사 서로

- 즐기고 의무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18. 결혼은 단순히 만들어 놓은 행복의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노력해서 행복의 요리를 돌이켜 만들어 먹는 것이다. (피 카이로)
19. 결혼은 혼자 있었으면, 잊지도 않았을 문제들을 돌이켜서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에디 캔터)
20. 결혼은 하나의 것을 창조하겠다는 두 사람의 의지이다. (니체)
21. 결혼은 독립은 동등하고, 의존은 상호적이며 의무는 상반되는 남녀 간의 관계이다. (안 스파)
22. 결혼은 경건하고 신성한 결합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억제되고 진지 하며 조심스럽고 양심적

“결혼이란 굴레는 매우 무겁다. 부부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함께 운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정문제의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이 결혼에 있다고 보고, 결혼의 정의를 종합, 편집하여 소개합니다.

- 1. 결혼(結婚)은 한자를 풀어 보면 결(結)은 '맺다, 매듭짓다, 열매를 맺다.'를 뜻하며, 혼(婚)은 '혼인하다, 아내의 친정'을 말함인데, 옛날에는 황혼(昏) 무렵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 혼례를 올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한자라고 한다.
2.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또는 어떤 사람이 이성의 상대와 부부로서의 법률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3.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고, 어떤 기쁨과 고난도 서로를 믿고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이다.
4. 결혼은 성숙한 남녀가 사회적으로 적법한 혼인 의식을 통해 성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 분리되었다고 주장했다.
12. 결혼은 성인 남녀가 그들이 거주하는 사회의 법률에 따라 정식적 관계와 서로에 대한 법적 책임, 공적인 의식을 갖는 하나의 합의이다.
13. 결혼은 텃줄을 끊는 의식이다. 텃줄을 끊어주지 않고 놓아두면 산모와 신생아 둘 다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결혼한 자식을 억지로 자기 아래 종속시키려는 행위는 창조자의 법칙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다 죽게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14. 결혼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사회의 전 기관들의 번영을 위해 필요하며, 자급할 수 없는 것들을 공급해주는 건강과 교육, 복지의 근원이자 최고의 기관이다.
15. 결혼은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16. 결혼은 장기 매춘계약이다.
17. 결혼은 권리를 받으므로

- 인 쾌락이어야 한다. (몽테뉴)
23. 결혼은 아름다운 무덤이다. (다니엘 린데만)
24. 결혼은 어떤 나침반도 알짜이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이다. (하이네)
25. 결혼은 상대를 이해하는 극한점이다. (팔만대장경)
26.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다. 그저 연옥 정도 된다. (에이브러햄 링컨)
27.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한국 속담)
28. 결혼은 관이야. 그리고 자식들은 관 뚜껑에 박는 못이지. (호머 심슨)
29. 결혼은 필요에 쫓겨서 서로를 속이는 예술이다. (오스카 와일드)
30. 결혼 전에는 공작, 약혼하면 사자, 결혼하면 당나귀가 된다. (스페인 속담)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scenic campus view,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and details about 2022 fall semester enrollment, degree programs, and study options.



# 제9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6년만에 열린 선교대회, “예수, 온 인류의 소망”을 주제로 성공적으로 마쳐...

제9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지난 7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예수, 온 인류의 소망(Jesus, the Hope of the World)”이라는 주제로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류응렬 목사)에서 개최됐다.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는 1988년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4년마다 수천명의 선교사와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과제를 고민하는 연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팬데믹의 여파로 2년 연기 후 6년 만에 마침내 다시 개최되었다.

포스트코로나의 영향으로 선교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수를 축소하여 1000여 명의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와 선교사들의 자녀로서 세계선교의 다음 세대인 MK 세대들과 MZ 세대들이 함께하여 코로나 이후 앞으로 나아갈 세계선교의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대회는 이전 모든 대회가 캠퍼스에서 열렸던 것과는 달리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 ▲ 선교의 세대계승 확인 - “언어가 가능하고 강력한 선교 네트워크 형성 돼”

첫째로 선교운동의 세대계승이다. 선교대회 1세대 이후 20-30대로 성장한 MK 세대들과 MZ 세대들이 중점적으로 참여하여 이번 선교대회의 의미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세계선교임을 보여줬다. 차세대 선교의 주역들이 MK들로 구성된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인도를 비롯하여 이미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MK들의 사역보고들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세계선교의 비전이 밝음을 보여줬다. 특히 장데이빗 선교사와 아들 장세창 형제의 선교 소식을

통하여 이제는 1세대로부터 시작된 선교가 다음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장세창 형제는 “MK 세대들이 힘이 더 있다. 첫째로 언어가 가능하고, 현지인들과 네트워킹이 되며, 문화의 이해가 더 뛰어나다”라고 당당히 밝힘으로써 차세대 선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둘째로 실질적이고 강력한 선교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조용중 KWMC 사무총장은 주제 발표에서 새로운 세대의 선교 방향은 전통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에 얽매는 것이 아닌 창의적이며 확장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적 공동체성을 가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더욱 더 글로벌화



고 있는 사역의 내용들을 발표 및 공유하였고, 중심분야별로 모여 지역의 특성 또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총

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의 소망임을 재확인하고, 다함께 합심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

발과 세계선교본질 회복의 긴박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개요와 함께 작성된 결의문의 내용은 “첫째로 선교가 교회의

음세대들이 선교의 동결된 자산을 인식하고 동원을 극대화 할 것을 결의. 넷째로, 전방 개척사역이 하나님 선교의 마지막 남은 과업 완수임을 결의. 다섯째로,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비즈니스 선교(BAM)가 중요한 선교적 도구임을 결의. 여섯째로, 도시선교와 의료선교, 교육선교가 중요한 하나님 선교의 플랫폼임을 결의. 마지막으로 총체적 선교로 비정부기구(NGO)와 문화예술영역이 전인적인 이웃사랑의 실천과 하나님 나라확장을 위한 로드맵임을 결의”으로 발표 되었다.

### ▲ 온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 만남이다

마지막 날, 폐회 예배 가운데 고석희 목사는 설교 메시지를 통하여 “온 인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였다. 폐회식 가운데 주강사였던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와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되었고 30여년동안 KWMC 사무총장으로 헌신하며 기여한 고석희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처음으로 캠퍼스가 아닌 교회에서 열린 선교대회를 안전하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대회장과 식사 및 교통안내, 대회안내를 제공한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함으로써 제9차 KWMC 세계선교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장 취재 김재상 기자)

## 세계선교의 세대 계승과, 네트워크 형성, 전문분야 트랙별 워크샵 통한 선교강화 및 워싱턴선언문 발표

되어 가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선교사역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팀 사역과 동역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며 지원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트랙 중심 전문 분야 별로 모인 워크샵 등에서 그룹발표와 함께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셋째는 트랙중심의 전문분야별 워크샵을 가졌다. 총 12개의 전문분야를 영역별(Track)로 선정하여 각 전문분야 별로 모임과 워크샵을 가짐으로서 선교전략의 분석 및 강화와 함께 분야별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각 전문분야별 리더들을 주축으로 현재 감당하

12개의 영역별 모임(Track)은 디아스포라, 도시선교, 문화예술과 미디어, 교육, NGO와 국제기구, Business As Mission, 선교동원, 선교적 교회, 전방개척사역, 선교적 공동체 성경 읽기, 선교협력, MK와 스페셜 세션의 다양한 분야별로 각각 모임을 가졌다. 각 분야별로 현재까지 사역지에서 진행했던 사역들의 실질적인 Case Studies를 보여줌으로서 앞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선교지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볼 수 있다.

### ▲ 워싱턴선언문 통해 세계선교본질 회복의 긴박성 알려

이번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선교사들의 선교현장이야기와 함께 저녁집회의 찬양과 메세지

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날 폐회 가운데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워싱턴선언문(Washington Manifesto)”을 발표했다. “세계선교가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한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소중함 선교의 유산과 선교운동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새로운 선교 환경에 적합한 전략의 연구가

본질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속적 삶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기로 결의. 둘째로 급변하는 선교환경 속에서 선교위기를 극복하고 교회, 선교사, 선교단체, 현지교회와 신학교가 모든 일에 협력함을 결의. 셋째로, 한 국선교에 평신도 전문인과 다



## 선교편지

<15면에서 계속>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공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인접해있는 북동부 7개주와 연결해있는 미얀마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또한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쉬, 부탄, 티베트, 중국, 인도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힌두, 불교, 무슬림을 무너뜨리는 강한 복음의 요새, 십자가의 전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100명의 신학생들이

상주하면서 공부할수있는 모든 필요한 시설들이 준비될수있게 자재비를 충당시켜 주시옵소서. 다시오실 주님의 침침을 평탄케하는 NCTS 새 피조물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마라나타!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 ♥ 기도 제목

- 6월 아웃리치비
- 나갈랜드 국제신학교 건축비(지하~1층 교회 5천만원)
- 랍브르 성전보수 공사
- 5군데 성전건축 완공

- 인도 핏박은 사라질지어다.
- 마디아 뿌라데쉬 주(M.P) 뿌라마라드 목사님 노트북 구입비(80만원)
- 무더위와 몬순(장마)기간이 지나 8월말(24일)부터 9월12일까지 단기선교팀을 받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섬겨 주세요. 전

인도 29개 주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기도와 선교물자로 동참해주세요.  
오직주 & 전하라 선교사 가정 올림  
<https://band.us/n/a4a772Qe06U9w>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북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립 켈러 두란노 |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두란노 | 내 마음도 설곳이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 왜 랜덤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